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63호 【루계 제25772호】 주체106(2017)년 9월 20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만리마선구자대회를 경제건설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증산투쟁, 창조투쟁, 생산돌격전을 맹렬히 벌려나가자

10여개 건축대상들의 기초 굴착 및 콩크리트치기 결속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위한 대상건설장에서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투쟁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는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위한 대상건설장에서 자랑찬 승전포성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울려퍼지고있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미제와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제재책동을 단호히 쳐갈길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종합조종실과 순환수랭각탑, 탈염수장을 비롯한 10여개 건축대상들의 기초굴착 및 콩크리트치기과제를 짧은 기간에 해제끼는 로력적위훈을 창조하였다.

이미 방대한 량에 달하는 구조물해체와 지대정리, 구내도로지반공사와 골재장 및 혼합장건설을 성과적으로 끝낸데 이어 8월 건설계획도 빛나게 완수한 이들은 지금 충천한 기세로 건설장마다에서 련속공격, 계속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략수행기간 석탄가스화에 의한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하고 갈탄을 리용하는 석탄건류공정을 꾸리며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공업을 완비하여 메타놀과 합성연유, 합성수지를 비롯한 화학제품생산의 주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합니다.》

지휘부에서는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5개 건축대상의 기초굴착과 콩크리트치기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며 지하관로망설치와 대상설비, 장치물제작을 집적으로 다그치기 위한데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정치분과에서는 모든 선전선동수단과 력량을 총동원하여 첨입식정치사상공세를 더욱 진공적으로 벌림으로써 모든 건설자들이 불굴의 정신력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적들의 야만적인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을 여지없이 짓뭉개버리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공사에 참가한 전체 일군들과 건설자, 기술자들이 불패의 핵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는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불뿜는 건설전투를 벌리고있다.

7, 8월 건설계획수행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인 순천화학련합기업소의 로동자들은 메타놀생산공정구역의 종합조종실기초굴착과 콩크리트치기를 빠른 속도로 다그치였다.

탈염수장건설에 떨쳐나선 화학건설련합기업소의 건설자들이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힘차게 벌리며 매일 맡겨진 과제를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였다.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전체 건설자들이 힘을 합쳐 순환수랭각탑의 기초굴착과 콩크리트치기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완수하였다.

하여 전체 공사량적으로 근 3 000㎥의 토사 및 암반굴착과 1 800여㎥의 콩크리트치기과제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고 종합조종실과 순환수랭각탑, 탈염수장을 비롯한 10여개 건축대상들에 대한 기초굴착 및 콩크리트치기를 질적으로 수행하는 자랑찬 로력적위훈이 창조되였다.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의 력사를 수놓아가는 긍지와 자부심을 날이 갈수록 마음속에 백배하며 순천화학련합기업소와 화학건설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지금 일터마다에서 공격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다. 그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높이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지하관로망설치공사를 일정대로 다그치면서 상자대와 물랭각탑, 배전소 등 5개 대상의 건축공사에서 련일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지금 이곳 일군들과 건설자, 기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여 백두산대국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철의 신념을 만장약하고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원쑤들의 최후발악을 단호히 짓뭉개며 사회주의의 마지막결승선을 향하여 총돌격해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 건설장마다에서 련속공격, 계속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공사과제를 매일 1.2배이상 해제낀다

고성군민발전소건설장에서

고성군민발전소건설을 맡은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미제와 끝까지 결산할 보복의지를 안고 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찬 돌격전을 벌려 언제건설과 물길굴작업갱굴진을 비롯한 모든 공사과제들을 매일 1.2배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는 강이 많은데 강들에 언제를 쌓고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고성군민발전소건설대상은 그 공사량이 대단히 방대하고 공사조건도 어려운 건설대상이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미제의 제재책동에 단호히 맞설 신념과 의지로 떨쳐나선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그들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군민발전소건설지휘부의 일군들은 현장에 나가 걸린 문제들을 솔선 풀어나가면서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미제의 악랄한 제재책동으로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조건에서 자력자강의 위력,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언제건설과 물길굴작업갱굴진을 비롯한 공사를 다그치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언제건설려단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언제공사에서 전례없는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날강도 미국이 주도하여 또다시 조작해낸 《제재결의》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해하며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공사속도를 부쩍 높이고있다.

금강군대대의 일군들은 언제가배수로기초굴착공사를 하루빨리 끝낼 통이 큰 작전을 펼치고 로력조직을 짜고들어 매일 맡겨진 공사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돌격대원들은 미제의 그 어떤 제재압살책동도 단호히 짓부셔버릴 의지로 가슴을 끓이며 언제가배수로기초굴착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취수갱굴진공사를 맡은 원산화학공장대대에서는 압축설비와 착암기들을 만가동시키고 합리적인 굴진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려단적으로 제일 앞서나가고있다.

창도광산대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물길굴작업갱굴진계획을 매일 1.2배이상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통암물뽑이공사장에서도 혁신의 소식이 련일 전해지고있다.

콩크리트언제를 쌓고 긴 구간의 물길굴을 건설해야 하는 방대한 공사를 맡은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면서 물길굴작업갱굴진에서 강원도정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물길굴과 발전기실공사를 맡은 단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도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맞으며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마련할 애국의 마음 안고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신현일

평성-남포도로개건공사 빠른 속도로 추진

평안남도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평안남도에서 평성-남포도로개건공사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도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자력갱생의 위력을 높이 떨치며 1년이상 걸려야 한다던 로반기초굴착공사를 단 석달만에 결속하고 옹벽쌓기와 물도랑파기전투에 진입하였다. 그리고 로반다짐 및 콩크리트포장을 위한 준비사업을 동시에 힘있게 내밀어 공사를 짧은 기간에 결속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로건설과 관리를 잘하여야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할수 있으며 국토의 면모도 일신할수 있습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웅대한 국토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이 공사를 하루빨리 완공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또한 능력있는 일군들로 강력한 공사지휘력량을 편성하고 도의 책임일군들이 공사장에 자주 나가 걸린 문제들도 제때에 해결해주면서 공사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도록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공사지휘부의 일군들이 대담한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로 공사를 박력있게 내밀었다. 특히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국방과학전사들의 눈부신 성과에 무한히 고무된 이들은 륜전기재들의 만가동보장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워 장마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로반기초굴착공사가 중단없이 진행될수 있게 하였다.

공사에 참가한 운전사, 운전공들도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맡겨진 전투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갔다. 그리하여 비가 억수로 내리는 불리한 속에서도 긴장한 전투의 낮과 밤을 이어온 이들은 20여만㎥의 토량을 처리해야 하는 로반기초굴착공사를 석달만에 결속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사회주의최후승리를 예고하는 주체식열핵무기의 장엄한 뢰성은 공사에 동원된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가슴가슴을 더욱 끓게 하였다.

필승의 신심에 넘쳐 짧은 기간에 총공사량의 60%계선을 돌파한 이들은 기세를 늦추지 않고 옹벽쌓기와 물도랑파기전투에 또다시 총돌입하였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공사지휘부에서는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완공의 지름길을 열어나갔다.

현재 옹벽쌓기공사장에서는 지휘부일군인 강영배동무의 발기에 따라 일정한 크기의 콩크리트부재들로 옹벽을 쌓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지고있다. 결과 개개의 돌들로 쌓을 때보다 옹벽의 견고성과 미학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수많은 목재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공사기일을 열흘이상 앞당겨 끝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고있다.

도에서는 공사가 높은 속도로 추진되는데 맞게 많은 량의 골재와 세멘트를 비롯하여 로반다짐과 콩크리트포장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의 보장대책도 예견성있게 세워 좋은 성과가 이룩되도록 하고있다.

주체의 핵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친 기세드높이 련속공격,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는 도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공사속도는 계속 높아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생산적앙양을

각지 닭공장들에서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만리마의 무쇠발굽으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봉쇄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하고있는 각지 닭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미 꾸려놓은 축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사업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입니다.》

서포닭공장에서는 이미 년간 닭알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련속공격전을 들이대고있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인민은 필승불패이라는 철리를 뼈에 새긴 공장일군들이 앞장에서 먹이문제해결에 큰 힘을 넣어 생산장성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공장에서는 많은 품을 들여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해놓은데 맞게 생산경영활동의 과학성과 신속성, 정확성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종업원들속에서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생산에 이바지할수 있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이 부단히 창안도입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사양관리를 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여 알낳이률을 훨씬 높이면서 과감한 생산돌격전을 전개하고있다.

구성닭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축산물증산을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내밀고있다. 그들은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대담하게 결심하고 달라붙어 부족되는 먹이를 자체로 확보하고있다.

한편 애써 마련한 먹이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고있다. 람조류단백먹이생산공정을 자체의 힘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여 콩깨묵을 절약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올해에만도 수백㎡정도 되는 못을 하나 더 파서 큰단백풀생산량을 높이고있다. 그들은 이렇게 생산한 큰단백풀을 닭에게 그대로 혹은 풀절임을 만들어 먹이는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알곡먹이소비량을 줄이면서 올해전투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고있다.

사리원닭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현대과학기술의 위력을 발휘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념안고 과학축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공장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클로렐라생산기지운영을 정상화하는 한편 그것을 축산물생산에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해당 단위와의 련계밑에 클로렐라와 지렁이를 원료로 하여 첨가제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이와 함께 닭배설물을 합리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균을 생산하는데도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그들은 이 균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 먹이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적지 않은 리득을 얻고있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수의방역사업은 축산업에서 생명과 같다는것을 명심하고 오존발생기를 제작하여 소독과 병치료에 적극 리용하고있다.

이들만이 아니라 각지 닭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발광하는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사상 최악의 제재압박소동을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축산물증산을 위한 힘찬 돌격전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황철민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올해 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여야 합니다.》

단천지구광업총국 광천광산과 강계세멘트공장, 명천가구공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로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단천지구광업총국 광천광산에서

단천지구광업총국 광천광산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뜻깊은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으며 년간 인민경제계획완수의 개가를 높이 올리였다.

광산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모든 일군들과 광부들이 만리마속도창조의 기수가 되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첨입식으로 들이대였다. 한편 미제와 추종세력들의 야만적인 제재책동에도 끄떡없이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련옥생산을 줄기차게 밀고나가기 위한 경제작전을 치밀하게 짜고들고 혁명적으로 일판을 전개해나갔다. 주별, 월별전투목표를 높이 세운 일군들은 들끓는 전투현장들에 내려가 제기될수 있는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앞질러 풀어주면서 진격의 돌파구를 믿음직하게 열어나갔다.

본산갱의 광부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렸다.

박명철생산소대에서는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속에 채준과 채광을 동시에 내밀어 일정계획을 1.3배이상 넘쳐 수행하면서 기세좋게 전진하였다. 날이 갈수록 더욱 횡포무도한 제재책동에 매달리는 온갖 원쑤들의 머리우에 불벼락을 들씌울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이들은 새 기록을 창조하며 전진속도를 부단히 높여 지난 8월 28일에 광산적으로 제일먼저 년간계획을 완수하였다.

버럭처리를 맡은 박성호운광소대에서도 집단적혁신으로 증산의 돌격로를 힘있게 열어나갔다.

채광갱의 모든 생산소대들은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의 2년분계획완수소식에 접하고 막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불뿜는 전투를 벌려 7월부터는 일생산량을 종전의 2배이상으로 끌어올리였다.

지하막장에서 치렬한 증산전투를 벌리는 광부들을 위하여 종업원들의 가족들도 후방물자를 안고 련일 찾아와 전투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였다.

공무중대를 비롯한 보장부문의 로동자들도 싸우는 고지에 탄약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설비가동률을 종전보다 훨씬 끌어올려 광석생산에 필요한 부속품생산을 믿음직하게 보장하였다.

본사기자 리철옥

강계세멘트공장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했다는 경이적인 소식에 접한 강계세멘트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만천하에 시위한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세멘트생산성과를 부단히 확대해나가고있다.

지난 7월말까지 년간 세멘트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로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계속 힘차게 돌진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우리 혁명의 년대기마다에 높이 추켜들었던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가기 위한 사업을 전투적으로 내밀고있다.

김태영, 김광호, 차성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들답게 들끓는 전투현장에 몸을 잠그고 힘있는 정치사업과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국가과학원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여러건의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자강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며 승리하는 길이라는것을 신념으로 새겨안고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전기와 원료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부쩍 높이고있다. 그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세멘트생산의 심장부인 소성로의 능력을 1.5배로 확장한데 맞게 송풍기들의 전동장치를 개조하여 크링카의 질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저열탄연소첨가제를 자체로 연구완성하고 생산에 받아들여 저열탄을 가지고도 질좋은 세멘트를 생산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전투장들마다에서 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채석종합작업반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굴착기, 압축기, 전차, 파쇄기를 비롯한 설비들에 대한 정비와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만가동을 보장하여 매일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원료종합작업반에서는 원료배합의 정확성을 보장하면서 자체의 힘으로 석탄건조로를 건설하고 합리적인 창의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석탄의 수분을 결정적으로 낮추고있다.

생산의 심장부를 맡고있는 소성종합작업반의 로동자들은 공장기술자들과 함께 여러 장치들을 창안제작하여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질좋은 크링카를 펑펑 생산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소성로에 습식제진장치를 제작설치하여 잡은 먼지와 가스를 리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공정을 꾸리기 위한 전투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특파기자 김순홍

명천가구공장에서

명천가구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에 한결같이 떨쳐나 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수십종에 달하는 목제품생산을 본때있게 다그쳐 년간계획을 지난 7월말까지 넘쳐 수행한 기세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계속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정초부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었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뜻깊은 올해에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여러가지 목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였다.

공장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생활향상에서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목제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당조직에서는 전투현장들에 속보판과 사회주의경쟁도표판을 전개하고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집중적으로 들이대였다. 또한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앞선 단위의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공장안에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켰다.

검덕의 고경찬영웅소대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살며 투쟁하려는 혁명적열의가 모든 작업반들에 차넘치는 속에 날마다 혁신이 창조되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여 여러가지 가공작업을 동시에 진행할수 있게 설비들을 개조하였다. 그리하여 시간당 목재가공속도를 높이고 제품의 질을 개선하였다.

합판작업반원들이 생산돌격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였다. 작업반원들은 생산의 첫 공정을 맡아나섰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설비관리, 기대관리를 짜고들어 원삭가공을 비롯한 작업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해제끼였다. 이들은 질좋은 합판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 공장이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끝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가공작업반과 조립작업반을 비롯한 여러 작업반의 로동자들은 고경찬영웅소대원들처럼 살며 투쟁할 불타는 열의를 안고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 맡겨진 전투계획을 매일 1.2배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새 제품창안열풍을 세차게 일으켰다. 그리하여 가구생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여러가지 목재가공품들을 더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파기자 리은남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보장할 일념안고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정신력의 강자들을 당할자 없다

위대한 병진의 기치높이 핵무력강화의 련속포성으로 세계를 진감하는 우리 공화국.

그 어떤 광란에도 굴함없이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기상인양 온 행성을 뒤흔들며 또다시 창공높이 치솟아오른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

이는 아직도 유엔의 제재따위에 매달려 가소롭게 놀아대는 얼빠진자들의 정수리를 친 쾌승이다.

우리의 불가항력적인 위력에 면접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무대를 도용하여 별의별 추악한짓을 일삼고있지만 연길폭탄정신을 뼈에 새긴 우리 군대와 인민을 추호도 놀래울수 없다. 오히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병진의 한길로만 굴함없이 나아가려는 불변의지를 더욱 억척같이 벼리게 하며 100% 우리의것인 전략무기들을 더 펑펑 만들어내는 우렁찬 동음으로 적들의 온갖 궤변을 짓누를 멸적의 투지를 천백배로 승화시켜줄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후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원한 전사,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정신력을 지닌 인민이며 이 지구상의 절대적힘을 틀어쥔 위대한 강국의 인민이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 우리 인민을 살륙하고 못살게 굴고있는 철천지원쑤 양키무리들을 전민이 달라붙어 죽탕칠 무서운 기세로, 천년숙적 간악한 쪽발이들을 씨조차 없이 수장해버릴 격양된 투지로, 미제의 삽살개인 더러운 괴뢰역적무리들을 무자비한 불마당질로 쓸어버릴 격노한 의지로 우리는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날에 우리 당과 인민은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을 겪었지만 수천년민족사를 다하여서도 누릴수 없었던 모든 영광을 맞이하였습니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위대한 정신력의 근본원천이며 영원한 조선의 정신이다.

이 위대한 정신을 체질화한 인민과 맞설자 세상에 없다.

주체사상을 체질화한 우리 인민은 주체혁명의 전로정을 자력갱생의 년대기로 빛내여온 영웅적인민이다.

오직 자기의 힘으로 혁명을 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사상으로 인민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미증유의 성공탑을 쌓아온 우리 혁명의 력사, 그 갈피갈피를 어찌 잊을수 있으랴.

포악한 강도 일제를 무리로 쓸어눕힌 연길폭탄, 이 전설같은 무기를 만들어낸 병기창은 그 어떤 나라 사람들이 선사한 공장이 아니였다.

혁명은 수출할수도 없고 수입할수도 없다. 혁명은 어디까지나 자체의 힘으로 하여야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신하여줄수 없다.

이런 비상한 자주신념으로 피를 끓이며 조선의 혁명가들이 하나하나 모아놓은 모루와 망치, 집게, 풍구 등으로 꾸려진 자그마한 철공소, 바로 그 철공소에서 화약이 제조되였고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가 그 이름만 들어도 사시나무떨듯 한 연길폭탄이 쏟아져나왔다.

백두밀림에 차넘치던 그 위대한 연길폭탄정신이 항일대전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왔다.

우리 조국이 수세기를 도약하여 공업화의 대문에 들어서게 한 자력갱생의 장엄한 우뢰, 세계를 뒤흔들어놓은 그 장쾌한 뢰성이 쟁쟁하다.

놀라운 소식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온 나라를 흥성이게 하던 때였다.

뜨락또르를 만드는 나라가 불과 10여개밖에 없던 때 단 35일만에 뜨락또르를 만들어 우리 나라가 뜨락또르생산국대렬에 당당하게 들어섰다.

수천년세월 가대기로 밭을 갈던 이 땅에 천리마의 이름을 달고 고고성을 터친 우리의 뜨락또르가 동음높이 대지를 갈아엎던 그 희한한 모습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40일간의 격전속에 우리는 자력으로 자동차를 만들었다.

인류가 인공위성보다 더 빠른 속도라고 경탄한 14분동안에 한세대의 살림집 조립!…

그 격동적인 나날 우리 다같이 절감하지 않았던가.

자력갱생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으며 미래가 있다는 주체혁명사의 정의를.

시련의 나날 우리의 힘, 우리의것으로 조선의 정신, 조선의 기상을 만방에 과시할 웅지를 안으시고 력사의 땅에서 울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선언이 천만의 심장을 쿵쿵 높뛰게 한다.

자력갱생이 제일이다.

우리는 절대로 남을 쳐다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제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이 신념으로,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자강의 배짱,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자 없다는 결사의 의지로 온 나라가 폭풍노도쳐 우리 당의 자력자강의 력사, 그 영광스러운 갈피를 두터이하지 않았던가.

민족적자존심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로정이였다.

민족적자존심은 나라와 민족의 흥성번영을 담보하는 정신적원동력이다. 우리 민족은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며 우리 인민이 창조한 비약의 력사는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돌이켜보면 일제식민지통치의 후과로 하여 텅 빈 국고를 물려받은 조건에서 오직 자기 힘을 믿고 건국의 초행길을 헤친 우리 인민은 전후 재가루만 날리는 빈터에서 또다시 맨손으로 복구건설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앞서면 강자가 되고 뒤떨어지면 약자로 밀려나게 된다. 절대로 남에게 뒤떨어지거나 눌리우지 않겠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 비상한 자각이 우리 인민의 심장을 불태웠다.

이 강한 민족적자존심으로 우리 인민은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려 이 땅우에 그 어떤 원쑤도 감히 건드릴수 없고 그 누구도 놀래울수 없는 강국을 일떠세우지 않았던가.

자력갱생, 이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천만군민에게 남기신 간곡한 당부이다.

사람들이여, 경건한 마음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당부를 되새겨보자.

자력갱생의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다. 완강한 난관극복의 정신,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하는것이 자력갱생이며 그것으로 하여 빛나는것이 자력갱생선구자들의 투쟁행로이다.

자력갱생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해도 간고분투하며 그 길로 끝까지 전진해나감으로써 대고조의 불길이 그 어떤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더욱 거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의 길, 오직 자력갱생의 주로로만 질풍같이 달려온 우리 혁명의 력사를 억만금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주체사상의 조국에서 연길폭탄의 력사와 천리마시대의 서사시를 배우며 자라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정신과 슬기를 총폭발시켜 미제와 어중이떠중이들의 책동을 짓부시려는것, 바로 이 철의 신념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자력갱생의 불바람이 온 나라에 료원의 불길로 타번지게 하신다.

자력갱생, 이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원한 정치철학이다.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담은 억세인 꽃을 한껏 펼친 우리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은 자력자강을 원동력으로 한다.

자력갱생하는것, 바로 이것이 당의 의도이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이는 우리 세대가 갖추어야 할 절대적징표이다.

칼을 물고 날뛰는 침략의 무리들, 고립, 압살, 제재 등 형형색색의 발악적책동에 매여달리는 온갖 잡것들의 극악한 행위를 자위적핵무력, 그 격노한 불소나기로 재가루로 만들기 위하여 핵무력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일러오기를 상대를 알지 못하면 마주서지 말라고 하였다.

자주로 존엄높은 우리 조국은 침략의 무리가 덤벼든다면 지구상 그 어디이건 순간에 초토화해버릴수 있는 절대적힘을 틀어쥔 강국이다.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 미제침략자들을 박멸할 때가 되였다. 미국땅을 초토화하자. 암흑세계로 만들자!

지금까지 차근차근 준비한 보복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한을 풀자!

미제와 추종세력들이 이처럼 무섭게 일떠선 인민을 보지 못하고 서리발치는 이 격노한 함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는 영원히 재생불가능한 사상 류례없는 괴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 인민이 더욱 높이 추켜든 자력갱생의 기치, 이는 우리 천만군민의 결사의 신념과 기개의 발현이다.

대대손손 핵강국의 덕으로 이 땅우에 만복이 넘쳐나는 락원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천만군민에게 있어서 허리띠를 조이며 피의 대가로 이룩해낸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 우리 당 병진로선의 자랑찬 승리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운명이고 재부이다.

온 나라를 항일의 병기창으로!

전체 인민이 수소탄의 거대한 뢰성을 가장 장쾌한 승전가로 어머니조국에 삼가 드린 핵과학자, 기술자들의 승전고에 대비약, 대혁신의 포성으로 화답하자!

이것이 횡포하고도 비렬한 국가테로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미제와 그 주구들의 면상을 가슴후련히 쳐갈길 분노로 피끓이는 온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의 웨침이다.

이런 인민을 당할자 세상에 없다.

본사기자 량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로정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다.

—황해제철소혁명사적관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철석의 의지가 비낀 력사의 선언

우리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을 높이 받들고 최후승리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는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내놓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숭엄한 영상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국방공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며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나라의 군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주체91(2002)년 9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지금 선군시대에 살며 투쟁하고있다고, 우리는 경제건설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해나가야 한다고 언명하시였다.

일군들은 선군시대의 경제건설과 관련한 중요한 가르치심을 받아안게 된 흥분으로 하여 세차게 가슴설레였다.

그러는 일군들을 일별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은 선군시대라고 강조하시고나서 선군시대에는 국방공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우리는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것을 경제건설의 중요한 로선으로 틀고나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이를데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그이의 가르치심은 그 어느 고전에도 있어본적 없는 새로운 세계를 밝히고있었다.

감탄과 격정에 휩싸인 일군들은 그이께서 새롭게 밝히신 로선과 이미 견지해오고있는 우리 당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어떻게 련관되여있는가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있었다.

그들의 속마음을 읽으신듯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로선은 결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사회주의경제건설로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이런 의미에서 중공업이자 국방공업이며 국방공업이자 중공업이라고 할수 있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로선은 선군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로선이지만 지난 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관철하여 이룩된 성과에 기초하고있는 로선이며 그의 계승이라고 뜨겁게 강조하시였다.

달아오른 일군들의 가슴을 두드리며 위대한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또다시 울리였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로선을 나라와 민족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일관하게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일군들의 심장은 세차게 고동쳤다.

나라와 민족의 생명선으로!

참으로 그것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부터 목숨보다 귀중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철의 의지가 비낀 력사의 선언이였다.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산악같이 일떠서 강국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는 영웅조선의 불패의 기상앞에 원쑤들은 전률하였다.

우리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의 기치따라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터져오르는 오늘의 장엄한 승전포성들과 더불어 선군의 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한영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네팔련방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까뜨만두

비팔련방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비댜 데비 반다리각하

나는 경사스러운 네팔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따뜻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고있는 친선협조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체106(2017)년 9월 19일 평양

영원한 불변궤도

백두산대국의 무궁무진한 위력이 천지를 진감하는 오늘 어찌하여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은 세차게 높뛰고있는것인가.

승리의 조종간을 억세게 틀어잡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드높은 신념으로 해서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생토록 걸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감으로써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로서의 사명과 의리를 다하여야 합니다.》

주체78(1989)년 6월 어느날이였다. 그때로 말하면 제국주의자들의 회유와 위협공갈책동에 굴복한 여러 사회주의나라들이 《개혁》, 《개편》바람에 말려들어 《개방》을 떠들면서 변질의 길에 들어서고있던 때였다. 이러한 때 세계의 이목이 사회주의조선에 쏠리고있었다. 조선에서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때문이였다. 이런 억측과 랑설이 떠돌 때 당중앙위원회의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갈데 대한 참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날로 악랄해지는 적들의 책동에 대처하여 혁명적사상공세를 들이대며 국방공업에 계속 큰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리시고는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우리의 혁명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질데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는 절대로 개방을 안할것이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앞에서 자신의 드팀없는 의지를 이렇게 피력하시였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우리 인민을 주체의 한길로 확고하게 령도할것입니다. …나의 길은 곧 인민을 위한 길, 조국을 위한 길, 후대들을 위한 길입니다. 나는 하늘땅이 뒤집혀도 변함없이 그 길을 갈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확고부동한 혁명적신념과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기상을 만방에 떨치며 주체의 조국, 불패의 강국으로 솟구쳐오른것 아닌가.

그렇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불변궤도는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이다.

이런 철의 신념과 의지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노도쳐 나아갈것이다.

본사기자 림정호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의 진모습

오늘 우리 조국은 위대한 당의 령도에 의하여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높이 떨치고있다. 모든 리상과 꿈을 눈부신 현실로 펼쳐주는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이 누리는 영광과 행복은 더 이를데 없다. 하기에 온 나라 천만군민은 지금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백두산대국을 최후승리에로 향도하는 우리 당을 우러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진모습은 당이 꾸려놓은 조국의 모습에 있고 언제나 행복에 겨워있는 인민의 모습에 있습니다.》

당에 대한 인민의 신뢰심은 당의 진모습에 바탕을 두고있다.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령도적권위를 지니고있다고 하여 저절로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게 되는것이 아니다. 당의 모습이 참되고 숭고하여야 인민은 스스로 당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갈수 있다. 권력이나 강압으로는 움직일수 없는것이 인민의 마음이다.

당의 위대성은 작은 나라와 민족도 위대한 나라와 민족으로 만드는데 있으며 혁명적당의 본성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조국의 모습, 인민의 모습을 보면 당의 모습에 대한 표상을 가질수 있다.

우리 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70여년이 지나갔다. 장구한 이 기간 우리 당은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붉은 당기를 높이 추켜들고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 나라의 국력과 인민의 존엄을 가장 높은 경지에 올려세웠다. 력사의 모진 돌풍과 시련을 맞받아 헤쳐오면서도 우리 당의 사명과 성격, 풍모에서는 추호의 변색이 없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우리 당의 진모습은 더욱 부각되고있다. 우리 나라를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할 최고의 리상을 내세우고 애국애민의 숭고한 정론을 수놓아가는 위대한 향도자가 우리 당이다. 오늘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우리 당의 정치리념으로 되고있으며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우리 당의 존재방식, 혁명적당풍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의 모든 활동도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철저히 지향되고있다. 여기에 만난이 겹쌓이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조선로동당의 참모습이 있다.

우리 당의 진모습은 당이 꾸려놓은 조국의 모습에 있다.

조국은 민족적존엄의 상징이며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다. 조국의 운명속에 개인의 운명도, 민족의 운명도 있다. 그런것만큼 혁명적당의 진모습은 강대하고 흥성번영하는 조국의 모습에서 뚜렷이 표현된다.

돌이켜보면 외세의 발굽에 무참히 짓밟혀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속에서 허덕이던 가장 비참한 식민지약소국이 해방전의 조선이였다. 그러던 우리 조국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 빛을 뿌리게 되였으며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영웅조선, 기적의 나라로 만방에 위용떨치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의 탁월한 혁명사상은 우리 조국이 사소한 침체와 답보도 없이 주체의 한길, 승리의 한길로 전진해올수 있게 한 전투적기치였고 비범한 령도는 우리 조국이 자주, 자립, 자위의 강위력한 사회주의성새로 전변될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어머니 우리 당의 위대한 손길이 없었다면 천만군민이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굳건히 지켜가는 불패의 우리 조국, 인간사랑의 대화원이 만발하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우리 조국도 없었을것이다.

민족의 자주권과 후손만대의 행복이 확고히 담보되는 조국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강국의 징표를 갖춘 나라이다. 오늘날 강국의 리상이 전면적으로 훌륭히 실현되는 우리 조국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떳떳이 자부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헌신의 한생이 어려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이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우리 당의 이러한 애국의 웅지가 오늘 우리 조국의 국력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고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백두산청년강국으로,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한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으며 자력갱생대진군, 과학기술결사전으로 경제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확신성있게 점령해나가고 온 나라에 미덕의 향기, 약동하는 사회주의생활기풍이 차넘치고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강산이 변하는 천지개벽의 새 력사,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 력사와 전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고있는 오늘의 벅찬 현실은 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당을 위하여 조국이 있는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하여 당이 있다. 일찍부터 이 원칙에 충실하여온 우리 당의 진모습은 백년, 천년이 가도 달라지지 않는다.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이 향도하기에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은 자기의 본태를 꿋꿋이 고수하며 끝없이 흥성번영할것이다.

우리 당의 진모습은 행복에 겨워있는 인민의 모습에 있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 때문에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혁명적당의 당건설과 당활동은 인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는데로 지향되어야 한다.

이민위천은 우리 당이 력사상 처음으로 내세운 정치리념, 정치신조이며 인민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은 우리 당의 좌우명이고 드팀없는 의지이다. 하기에 우리 당은 인민의 운명을 지켜 참혹한 전쟁의 불구름도 밀어냈고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 모든것이 파괴된 재더미우에 만복의 터전을 다져놓았으며 세상에 없는 무상치료제와 무료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세금없는 나라도 일떠세웠다. 온 나라 가정을 다 돌보며 혁명과 건설의 천사만사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데 복종시켜온 우리 당의 은혜로운 품이 있어 도시와 농촌, 두메산골과 조국땅 한끝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서나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질수 있었다.

그 어떤 최악의 역경과 시련이 닥쳐와도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지켜주고 그들의 생활과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주는 여기에 당의 진모습이 있다. 어려울 때 인민을 외면하고 인민이 당하는 불행을 가셔주지 못하는것은 혁명적당의 본태가 아니다.

오늘 우리 혁명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준엄하다. 그렇지만 우리 조국땅에서는 만시름을 잊은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기쁨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참혹한 대재앙으로 한지에 나앉았던 피해지역 인민들이 사회주의선경에서 꿈같은 행복을 누리고있다. 부모없는 아이들과 학생소년들, 돌볼 자식이 없는 늙은이들이 나라에서 꾸려준 새 보금자리에서 긍지높은 삶을 누리고 평범한 과학자, 교육자들이 현대적인 새 집들에서 최상의 문명을 향유하고있는것이 우리 인민의 복받은 모습이다. 원쑤들이 우리 인민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빼앗으려고 사상 최악의 제재압살광풍을 몰아와도 우리의 상점, 우리의 제품들이 펑펑 생산되고 과일향기, 바다향기가 더욱 차넘치고있으며 외진 산간벽지에서도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나오는 모습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다. 이것은 행복에 겨워있는 인민의 웃음소리에서 혁명하는 멋과 보람을 찾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 길에서 한알의 보배알이 되어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을 지닌 우리 당의 품속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숭고한 화폭이다.

인민의 행복이 커가고 인민의 웃음소리가 높다는것은 당에 대한 인민의 신뢰심이 높다는것이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무한한 활력과 왕성한 열정으로 인민을 위해 정을 다하는 헌신의 당, 변함없는 어머니당으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나갈것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진모습을 심장에 가득 채우고 당을 따라 광명한 래일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가야 할것이다.

윤철희

한계를 모르는 조선의 위력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으로 온 조국땅이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발사훈련 또다시 진행!

그 어떤 대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최강국의 지위와 존엄을 다시금 힘있게 시위한 우리의 전략탄도로케트의 장엄한 뢰성이 천만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며 이 나라 강산에 끝없이 메아리친다.

하지만 이 땅에 세차게 굽이치는것은 단순히 우리 조국이 핵무력전력화에서 또 하나의 승리를 이룩하였다는 기쁨과 환희만이 아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것입니다.》

지난 7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에서 완전성공을 이룩한 그날의 이야기가 천만의 심장을 뜨겁게 하여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의 시험발사결과를 분석하시고 완전대성공이라고 선언하시자 발사장은 이를데 없는 뜨거운 격정과 환희로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력사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의 대성공은 장장 수십년세월 세기를 이어온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로 된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횡포한 도전과 겹쌓이는 시련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받들어온 위대한 조선인민에게 숭고한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

인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열렬하시면 온 나라 인민이 올리는 뜨거운 인사를 받으셔야 할 그 시각 오히려 인민들에게 감사를 주시였으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그날의 말씀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시는 그이의 숭고한 사상감정의 분출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열화와도 같은 사랑은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서 불굴의 정신력이 세차게 뿜어져나오게 하는 근본원천으로 되고있다.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대한 그 사랑에 떠받들리여 발휘되는 천만군민의 불굴의 정신력이 있기에 우리 조국의 전진속도는 날이 갈수록 더더욱 빨라지고있다.

탄도로케트의 비행속도에는 한계점이 있을수 있어도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의 위대한 전진속도에는 한계점이란 없다.

바로 이것이 주체탄의 련속적인 뢰성과 더불어 이 땅에 세차게 메아리치는 철의 선언이다.

본사기자 정순학

당조직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만리마대진군을 힘있게 추동하자

자력자강을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원산시당위원회 사업에서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지는 자력갱생대진군의 불길속에 최근 원산시에서 전례없는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다.

시안의 많은 공장들이 훌륭히 개건되여 생산이 활성화되고있으며 기관, 기업소들은 물론 동, 인민반을 비롯하여 시의 전반적인 면모가 일신되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큰 규모의 공사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여러가지 실질적인 대책들이 련이어 취해져 시민들모두가 기뻐하고있다.

이 자랑찬 성과의 바탕에는 시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자력자강을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자강력을 높이 발휘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시켜나간 시당위원회일군들의 참신한 사업기풍이 놓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시당위원회의 사업에서 특징적인것은 일군들부터 자력자강의 선구자, 기수들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은것이다. 온 시에 자력자강의 열풍을 안아오는데서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기때문이다.

지난해 어느날 시안의 려객운수부문 실태를 료해하던 시당위원장 윤상범동무는 무궤도전차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지난 시기 전기사정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조건으로 가동을 멈춘 무궤도전차였다.

그러나 이제는 전기가 팡팡 생산되고있는 조건에서 다시 살려내기만 하면 인민들의 생활에 얼마든지 이바지할수 있었다.

시당책임일군은 자기의 의향을 해당 일군들에게 비쳐보았다. 하지만 뜻밖에도 일군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그것을 원상복구하기에는 품이 많이 들고 더우기는 자체의 힘과 기술이 빈약하다는것이였다.

이 문제를 놓고 책임일군은 생각이 깊었다. 문제는 그 어떤 기술이나 자재의 부족에 있는것이 아니라 제힘으로 일어서려는 자력자강의 정신이 부족한것이였다.

이를 계기로 시당책임일군은 일군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패배주의를 뿌리뽑고 자기 힘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새겨주는것이 선차적이라고 보았다.

일군들의 모임에서 시당책임일군은 단호히 선언했다. 당에서는 현시기 혁명의 지휘성원인 우리 일군들부터 그 어떤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자기 힘만을 믿고 일떠서는 굳센 의지의 소유자, 완강한 실천가들로 준비할것을 바라고있다. 우리 일군들이 패배주의에 빠져 난관앞에 주저하며 한걸음 물러서게 되면 래일에는 온 시가 열걸음, 백걸음 물러서게 된다.

시당책임일군의 불같은 토로는 모임에 참가한 모든 일군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자기의 정신상태를 돌이켜보며 새로운 각오, 자력자강의 정신을 안고 분발해나서게 되였다.

시당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직사업에 따라 시안의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모두가 무궤도전차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들끓는 전투현장 그 어디에서나 가장 어렵고 힘든 모퉁이에는 일군들이 먼저 어깨를 들이댔다. 철판이며 용접봉을 비롯하여 부족되는 자재들을 자체로 해결해가지고 달려와 전투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일군들의 대렬이 나날이 늘어났다.

대중의 정신력이 비상히 앙양되는 속에 무궤도전차들이 점차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고 얼마후에는 시안의 중심거리를 누비며 기운차게 내달리게 되였다. 이 과정에 시안의 일군들은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하여 다시금 절감하고 자력자강을 확고한 신념으로 더 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실천투쟁의 용광로속에서 자강력의 강자들로 키워나간것 또한 시당위원회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볼 때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단계에 걸쳐 성과적으로 완성한 동명산지구의 자연흐름식수도화공사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을 꿰질러야 하는 굴만 해도 여러개나 되고 물길의 길이는 수천m를 넘는 방대한 전투였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이 공사에 큰 의의를 부여하였다. 아무리 어려운 공사라고 하여도 그것을 자체의 힘으로 완성해나가는 실천투쟁을 통해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자강력을 체질화한 신념의 강자들로 키우기 위해서였다.

온 시가 떨쳐나섰다. 걸음마다 애로와 난관이 앞을 막아나섰다. 차길도 따로 없었다. 모든 물동량을 등짐으로 날라야 했다. 그들은 미끄러운 산에 오를 때는 신발에 새끼줄을 동여매고 한치한치 톺아올랐고 압축기가 고장나면 함마로 발파구멍을 뚫으며 공격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자력자강이라는 글발은 군기마냥 언제나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휘날렸다.

계속되는 철야전투의 나날속에 이들은 끝끝내 자체의 힘과 기술로 공사를 성과적으로 완공하고야말았다. 결과 동명산지구에 수질이 좋은 물이 정상적으로 흘러들게 되였다.

이 격동적인 투쟁의 나날을 통하여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모두는 자강력이 제일이며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설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의 진리를 심장깊이 체득한 자력자강의 강자들로 더욱 억세게 자라나게 되였다.

바로 이런 자력자강의 불길속에 동명산지구 고층아빠트들의 승강기운영이 정상화되고 원산시 명석소학교가 훌륭히 개건되는 등 이전시기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였던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게 되였다.

시당책임일군은 말하고있다. 불가능을 모르는 제일무기가 바로 자력갱생이라고.

옳은 말이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며 우리가 잘살고 흥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당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완강하게 투쟁할 때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이것이 이들이 실천투쟁을 통하여 확증한 철의 진리였다.

본사기자 윤명철

압록강기슭에 몰아치는 창조의 열풍

김정숙군당위원회에서

김정숙군에 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이곳 군당위원회에서는 어머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읍지구를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리기 위한 투쟁에로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량강도는 우리 혁명의 사적들이 많은 유서깊은 곳입니다.》

지난 1월 군당위원회 사무실에 모인 사람들은 놀라운 눈길로 군당책임일군인 김창수동무를 바라보았다. 읍지구에 6동의 소층아빠트를 새로 건설하는것을 비롯하여 군문화회관과 소년회관, 군인민병원 등 공공건물들을 군자체의 힘으로 보수 및 건설하자는 군당책임일군의 제의가 너무도 어벌이 컸던것이다.

군이 생겨 아직 그처럼 방대한 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진행해본적도 없거니와 도에서 도와주기로 되여있던 공사여서 더욱 그러하였다.

하지만 절절하고도 단호한 군당책임일군의 호소는 일군들의 심장마다에 비상한 각오를 새겨주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사적을 길이 빛내이며 군안의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걸음을 내짚자면 우리 일군들부터 구태의연한 사업기풍과 완전히 결별해야 한다. 일군들이 혁신적인 안목과 자력자강의 의지를 지니고 앞장에서 진격로를 열어나간다면 얼마든지 군자체의 힘으로 군의 면모를 일신시킬수 있다. 한몸이 그대로 모래가 되고 몰재가 되여서라도 기어이 우리 당의 높은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나가자.

군당책임일군의 말은 일군들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었다. 이렇게 되여 군에서는 건설의 불바람이 일어나게 되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군안의 당 및 행정경제일군, 근로단체일군들로 돌격대가 조직되였다. 그와 함께 기관, 기업소들을 단위로 하는 돌격대들도 조직되였다. 여기에 읍지구의 가두인민반원들도 합세해나섰다.

공사가 시작되자 애로와 난관이 겹쳐들었다. 그때마다 김철, 김영철동무를 비롯한 군당위원회 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면서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켰다. 또한 공사가 벌어지는 전투장마다에 방송선전차를 비롯한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을 집중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압록강을 넘나드시며 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결사관철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군안의 주민들모두가 결사관철의 기풍을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하였다. 돌격대의 모든 중대들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을 통하여 공사단계별계획수행을 위한 집단적경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였다.

군인민위원회일군들은 세멘트와 강재, 목재 등 공사에 필요한 자재보장사업을 위해 신발창이 닳도록 뛰여다니였다.

그리하여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강의 얼음을 까내고 수만㎥의 모래를 채취하였으며 몇달만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뜨겁게 새겨진 읍지구 원상보존구역의 60여동에 달하는 단층살림집보수공사를 훌륭히 완공하였다. 뒤이어 군인민병원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꾸려놓았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고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인 유서깊은 곳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나갈 불타는 애국충정을 가슴마다에 간직한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김정숙군은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용암마냥 끓어번지고있다.

본사기자 채인철

당원들의 핵심적역할을 높여

황해북도도시건설려단 정치부 사업에서

최근에 자강력을 높이 발휘하기 위한 투쟁에서 황해북도도시건설려단이 이룩한 성과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려단에서는 자체로 많은 건설장비들과 기공구들을 마련하여 맡은 건설과제들을 기백있게 내밀고있다.

하다면 다른 때보다 조건이 좋아졌는가.

아니다. 그것은 불리한 속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주동적으로 찾아 대중의 자강력을 최대로 폭발시킨 정치부사업과 관련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정치사업을 앞세워 조직과 대중을 움직이고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가을 이곳 려단정치부장으로 임명되여온 김창성동무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려단이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친 당의 의도에 맞게 비약하자면 무엇보다도 건설장비들과 기공구들을 그쯘히 갖추어야 한다는것은 명백한데 현실적인 조건은 너무도 어려웠던것이다.

반드시 갖추어야 할 건설장비들과 기공구품목들을 확정해놓고 려단장 송규일, 참모장 전재명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부족되는 자재, 자금을 해결할 방도를 모색하던 정치부장의 머리속에는 당원들의 모습이 먼저 떠올랐다.

려단의 구성을 따져볼 때 당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었던것이다. 지금까지 려단이 건설장비와 기공구가 부족한 조건에서도 당이 준 과제를 제기일에 해낼수 있은것은 당정책관철의 선봉투사들인 당원들의 역할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었다.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킨다면 아무리 방대한 목표도 얼마든지 달성할수 있다고 그는 확신하였다.

《유리한 조건은 곁에 있습니다. 바로 당정책관철의 선봉투사들인 당원들의 대부대가 있는것입니다. 그들을 믿고 대담하게 일판을 벌립시다!》

몇달어간에 많은 건설장비들과 기공구들을 제작하여 기본건설대대들에 갖추어줄 작전을 펼친 정치부에서는 당원들을 그 벅찬 투쟁의 제일선에 세우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였다.

려단정치부 집행위원들은 자신들을 돌격전의 선두에 세웠다. 가정에 요긴하게 쓰려고 저축하였던 자금들을 저저마다 가지고나왔다. 부족되는 자재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얻어내기 위하여 파고철수집사업을 전개할 때에도 기술과, 계획과성원들을 비롯한 지휘부당원들이 선구자적모범을 보이도록 하였다.

정치부에서는 또한 7대대를 모체로 건설장비와 기공구들을 제작하기 위한 기술혁신력량을 편성한데 기초하여 전반적인 공정들에서 당원들호상간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였다. 지난 2월초 가공소대 소대장 리금철동무가 전투과정에 몸이 상하였지만 현장에서 치료를 받으며 전투장을 뜨지 않은 사실을 비롯하여 당원들속에서 발휘되는 긍정적인 소행들을 제때에 찾아 소개선전하였다. 전동다짐기제작에서 기술적문제로 하여 고충을 겪을 때에는 황북종합대학 공업대학교원과의 적극적인 련계도 취해주면서 당원들이 난관극복의 돌파구를 활짝 열어나가도록 하였다.

려단안의 모든 당세포들이 끓어번지고 모든 당원들이 자강력발양의 불씨가 되였다. 여기에 청년동맹원들을 비롯한 근로단체동맹원들이 한결같이 떨쳐나섬으로써 그처럼 불가능하게 여겨지던 건설장비들과 기공구들의 제작은 불과 석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나게 되였다.

결과 려단의 건설자들은 종전보다 헐하게 일하면서도 건설에서 속도와 질을 현저히 높일수 있게 되였다.

이곳 정치부사업에는 시사해주는바가 있다.

자강력을 높이 발휘하기 위한 사업에서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당정책관철의 결사대, 척후대인 당세포의 역할, 당원들의 역할을 특별히 중시해야 한다는것이다. 그럴 때만이 그 어떤 불리한 조건도 주동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키고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이다.

본사기자 리정수

믿음과 정으로 안아온 열매

강계기와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강계기와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어 그들이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며 자기 초소에서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장에 고려성균관 고려도자기학부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한 청년이 들어왔을 때였다.

공장에 없던 도자기전문가를 맞게 된 종업원들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수 없었다. 그들은 전문지식을 소유한 리동무가 있으니 이제는 기와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이 쭉쭉 풀리게 되였다고 기뻐하였다. 한마디로 리동무에 대한 종업원들의 기대는 남달리 컸다.

그러나 그후 리동무의 행동은 종업원들을 실망케 하였다. 기술문제에 들어가서 대중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축해버리는 현상이 빈번하였던것이다. 이런 그를 종업원들은 외면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니 리동무는 점점 공장에 대한 애착이 식어졌으며 나중에는 다른 단위로 갈 생각까지 하게 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초급당위원장 김철수동무는 지배인 안혁동무와 마주앉았다.

당에서 품들여 키운 청년지식인인데 우리가 부모된 심정으로 그를 잘 이끌어주어 공장의 주인으로 당당히 내세워주자.

그후 그들은 리동무를 자주 만나 대중을 존중하는 마음을 심어주었고 가정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살피며 애로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었다. 집이 좁아 생활에서 불편을 느낀다는것을 알았을 때에는 공장가까이에 새 집을 지어주었다.

리동무를 위하는 그들의 마음은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언제인가 기와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새로운 유약개발과제가 나섰을 때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공장의 발전과 관련한 이 중요한 연구과제를 대담하게 리동무에게 맡기였다. 그가 당조직의 믿음을 알고 적극 분발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공장의 억센 기둥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그가 성공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해당 단위들과 과학연구기관들에 보내여 선진과학기술을 배워오도록 조직사업도 해주고 필요한 많은 기술자료들도 구해주었다. 초급당일군은 리동무가 고심어린 노력이 깃든 창발적의견들을 내놓았을 때에는 그와 무릎을 마주하고 진지하게 토론도 하고 실천에 구현할수 있도록 조건보장사업도 따라세워주었다. 이 과정에 리동무는 마침내 질좋은 기와를 생산할수 있는 새로운 유약을 개발하게 되였고 그것은 즉시 기와생산에 도입되여 그 덕을 크게 보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그후에도 그에게 기술혁신과제를 련이어 맡겨주고 그가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하였다. 이 나날에 그는 공장에 없어서는 안될 보배로 떠받들리우게 되였다. 오늘은 공장의 책임기사로 자라나게 되였다.

그만이 아니였다. 공무작업반장 리동근동무를 비롯한 기능공들이 당조직의 이런 믿음과 방조속에 창의고안명수로, 자강력의 강자들로 자라나게 되였다.

기술자, 기능공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데서 그들에게 믿음과 정을 주는 문제가 이렇듯 중요한것이다.

본사기자 최영길

적들의 제재책동을 물거품으로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도록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청진시 송평구역당위원회 사업에서

마음의 문부터 열어야 한다

당일군이라면 누구나 군중에게 의거하여 사업을 전개하려고 한다. 그런데 군중이 스스로 찾아가서 어려움도 잊고 속마음을 터놓게 되는 당일군이 있는가 하면 사무실문은 열려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저어하는 당일군도 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문제가 풀려야 하는가.

송평구역당위원회 사업을 통하여 우리는 그 대답을 찾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꽃은 향기가 있어야 벌과 나비가 찾아들고 당일군은 인정미가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김충남동무가 구역당위원장사업을 갓 시작하던 때만 해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못하였다. 일부 일군들은 주민들에게 새로 온 당일군에 대한 표상이 별로 없기때문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김충남동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자기가 뜨거운 인정미로 사람들을 대하지 못하고있기때문이라고 보았다.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인민의 심장속깊이로 침투하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지만 그 심장이 받아들이는 통행증은 단 한가지 진심이라고 쓰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가슴을 쳤다.

그는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에게 뜨거운 정을 주기 위해 애썼다. 하루일과를 주민들을 만나는것으로부터 시작한것도 그때서였다. 출근길에서 도로관리원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학교와 병원에 들려 교원, 의사들도 만났으며 은덕원, 국수집에도 찾아가 봉사정형을 알아보군 하였다.

어떻게 하면 대중과 더 잘 어울리겠는가. 그는 늘 이 생각으로 모대기였다.

오래전의 일이다. 어느날 그는 조선인민군 군관들인 송평구역 남포소학교 교원 리윤희동무의 세 아들이 결혼식을 하게 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는 구역일군들의 협의회를 열고 우리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자고, 그들의 결혼상도 차려주고 세살림에 필요한 가정용품들도 해결해주자고 하면서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결혼식날 맏아들이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로동자로 일하다가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주어 고맙다고 이야기하자 김충남동무는 말하였다. 한생 교단을 지켜온 어머니에게 인사하라고, 조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동무의 어머니를 존경하는 구역주민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을것이라고.

다음해 양력설날 리윤희교원은 뜻밖에 구역당위원장이 보내온 새해축하장을 받았다. 후대교육사업에서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진정 넘친 당부는 머리흰 녀교원의 마음을 울려주었다.

언제인가 은정2동에 사는 로인이 구역당위원회를 찾아온적이 있었다. 그때 김충남동무는 나이많은 로인을 어떻게 사무실에서 만나겠는가고 하면서 정문으로 마중나갔다. 그는 로인의 건강과 생활을 알아보고 병치료대책을 세워준 다음 승용차에 태워 집에 보내주도록 하고서야 사무실로 돌아왔다.

로력영웅인 전 청진트락또르부속품공장 지배인의 집에 자주 찾아가 자식들이 아버지처럼 당에 충정다하도록 고무해준 사실, 한 고급중학교졸업생이 아버지의 과오로 고민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생활을 료해한데 기초하여 본인의 지망대로 청춘시절을 빛내일수 있도록 떠밀어준 이야기…

그 나날 김충남동무는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되였고 주민들은 친부모, 친형제를 만나는 심정으로 구역당책임일군을 찾아가게 되였다. 어렵고 힘든 문제, 마음속고충을 안고 구역당위원회를 찾아갔다가 기쁜 마음으로 당책임일군의 사무실을 나선 사람은 참으로 많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던 첫 시기에 당일군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가 있는 방문을 열듯이 당위원회의 문을 열게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렇다.

당일군의 사무실문이 열려있다고 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는것이 아니다. 당일군의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있어야 한다.

본사기자 김승표

지하막장에 총돌격전의 기상 나래친다

2.8직동청년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의 투쟁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2.8직동청년탄광에서 자력갱생대진군의 불길높이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포악한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셔버리며 석탄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올해 탄광앞에 제시된 석탄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려 상반년 석탄생산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한데 이어 7월과 8월에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혁혁한 위훈을 수놓았다.

자기들의 일터는 비록 수천척지하막장이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만리마속도창조로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들의 숨결과 불밝은 거리들에 넘치는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를 지켜간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사는 직동탄부들의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에 떠받들려 석탄산은 날을 따라 계속 높아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이며 투쟁기풍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탄광의 전체 일군들과 탄부들의 가슴가슴은 더 많은 석탄을 캐내여 올해 석탄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고 탄광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여갈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여있었다.

높아진 년간계획을 수행할수 있는 기본방도를 대중의 정신력발동에서 찾은 탄광초급당위원회에서는 전차갱입구와 생산돌격전이 벌어지는 막장마다에 갱, 중대, 소대별사회주의경쟁도표를 비롯한 직관선전물들을 게시하고 혁신의 소식을 제때에 소개선전하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탄부들의 혁명열, 투쟁열, 경쟁열을 날을 따라 고조시켜나갔다.

위훈과 혁신창조의 앞장에서 강성갱 차광수청년돌격대가 힘차게 내달렸다.

대장 김광철동무는 로력조직을 보다 합리적으로 짜고드는 한편 암질조건에 맞는 효률적인 발파방법을 받아들여 교대당 굴진실적을 최대로 높여나갔다.

지난 2월 청년강국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에 전례없는 굴진실적으로 보답하기 위해 드세찬 공격전을 벌리던 돌격대원들앞에 커다란 난관이 가로놓였다. 작업구간천반에 나타난 탄층이 붕락되였던것이다. 한순간 모두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이때 동발목을 메고 선참으로 붕락구간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었다. 대장 김광철동무였다. 그뒤를 돌격대원들이 너도나도 따라나섰다. 이들은 결사의 각오를 안고 줄기찬 전투를 벌리면서 막장을 한치한치 복구해나갔다. 한대의 동발을 세우고는 버럭과 석탄을 선별하여 실어내야 하는 복구전투는 참으로 간고하였다. 그러나 비록 한kg의 석탄일지라도 조국의 숨결을 더해주는 열과 빛이라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돌격대원들은 곱절이나 힘든 복구전투의 낮과 밤을 끊임없이 이어나갔다. 막장을 단 20일만에 복구한 이들은 련속전공, 련속발파의 동음을 또다시 높이 울려나갔다.

이런 불굴의 정신을 발휘하여 돌격대원들은 뜻깊은 태양절까지 상반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야말았다. 검덕의 고경찬영웅소대원들에게 보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축하전문에 무한히 고무된 돌격대에서는 또다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줄기찬 련속공격전을 벌이대여 지난 7월 30일에 탄광적으로 첫 년간계획완수단위의 영예를 지니였다.

이런 결사적인 투쟁기풍은 9갱 류철남굴진소대의 전투원들속에서도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태양절까지 상반년 굴진계획을 앞당겨 수행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며 소대장 류철남동무는 대원들에게 호소했다.

4년전 우리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시고 사랑의 친필서한까지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에 기어이 석탄산을 높이 쌓아 보답하겠다고 결의다진 우리가 아닌가. 하루계획을 수행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

한마음한뜻으로 떨쳐나선 대원들의 뜨거운 충정의 열기로 전투장은 새 기적창조의 불도가니로 화하였다. 권양기가 멎으면 탄차를 밀어서라도 운반을 보장했다. 소대원들은 힘이 진할 때마다 서로 어깨겯고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난관을 박차고 전진의 발걸음소리를 더욱 높여나갔다. 탄광당일군도 소대원들과 함께 일도 하고 후방물자도 안겨주면서 적극 고무해주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상반년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한 이들은 고경찬영웅소대의 투쟁위훈에 고무되여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전투에 기세충천하여 진입했다.

그러던 지난 7월 어느날 소대가 작업하던 구간에서 서수가 터졌다.

《동무들! 조국이 우리의 투쟁을 지켜본다. 나를 따라 앞으로!》라고 웨치며 소대장 류철남동무가 서수가 쏟아지는 속으로 뛰어들었다. 서철, 주성진, 리광민동무들이 그뒤를 따랐다. 쏟아져내리는 서수에 온몸이 물주머니가 되면서도 그들은 손에서 착암기를 놓지 않았다.

다음교대로 들어온 당세포위원장 김영범동무를 비롯한 소대원들도 함께 전투를 벌려 3일만에 이 구간을 극복하였다.

지난 8월초 뜻하지 않은 일로 부상을 당한 리광민동무를 소대원들은 치료부터 받으라고 등을 떠밀었다. 하지만 그는 년간계획수행의 그날까지 절대로 전투장을 떠날수 없다며 착암기를 더 굳세게 틀어잡고 그날계획을 수행하고야말았다.

소대원모두가 이런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한 결과 지난 8월 10일까지 년간 굴진계획은 성과적으로 완수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광을 현지지도하신 8돐을 맞으며 김유봉청년돌격대와 9갱 홍순광채탄중대 탄부들도 년간계획을 끝내는 자랑을 떨치였다.

석탄증산투쟁에 떨쳐나선 직동탄부들의 투쟁이야기를 여기에 다는 전하지 못한다. 그 격동적인 하루하루의 투쟁과정을 예사롭게 여기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본다.

수천척지하막장에서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헌신의 구슬땀을 뿌리며 우리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꽃피워가는 지하전초병들의 충정의 마음과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최영조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꽃피우며

함경남도 일군들과 근로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전 원아들의 배움의 궁전, 행복의 요람으로 훌륭히 꾸려진 함흥초등학원과 중등학원,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교육을 받을수 있게 훌륭히 건설된 어린이교통공원을 찾았다.

보기에도 시원한 새파란 인공잔디축구장이며 다기능화, 정보화된 교실들과 기숙사, 체육관을 비롯하여 교육환경과 생활조건이 그쯘하게 갖추어진 함흥초등학원과 중등학원은 그야말로 원아들의 보금자리였다.

률동기재모의훈련실, 립체률동체험실, 교통안전놀이실 등을 갖춘 교통안전교육관과 자동차놀이장구역, 체력단련구역을 비롯하여 여러 구획으로 이루어진 어린이교통공원 역시 아동심리에 맞게 흠잡을데가 없이 꾸려진 또 하나의 교육거점이였다.

여기에는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불타는 충정과 애국의 마음을 아낌없이 바쳐온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다.

우리 당의 뜨거운 은정속에 초등학원, 중등학원개건공사와 어린이교통공원건설이 진행된다는 소식은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흥분시켰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고 하신 우리 원수님의 뜻을 실천으로 받들려는 불타는 충정과 애국의 마음안고 펼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떠받들려 공사장들은 부글부글 끓어번졌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능력있는 일군들로 현장지휘부를 조직하고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박영식, 김철만, 김철, 장광철, 유홍일동무를 비롯한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의 일군들은 들끓는 공사현장에서 걸린 문제들을 솔선 풀어나가면서 대중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도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 시, 군들에서 달려나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착공의 첫삽을 박은 날부터 공사를 하루빨리 다그쳐 끝내기 위하여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바치였다.

초등학원교사공사를 맡은 신흥, 리원, 함주군돌격대, 기숙사공사를 맡은 북청, 영광, 덕성, 락원군돌격대, 체육관공사를 맡은 단천시와 고원, 금야군돌격대, 식당건물을 맡은 홍원군돌격대가 모범을 보이였다.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2.8비날론련합기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 함흥모방직공장, 도지방공업관리국, 도의약품관리소, 신흥관의 돌격대원들이 중등학원개건공사에서 건축물의 조형예술적특성을 잘 살리면서 어렵고 힘든 공사과제를 손색없이 수행하였다. 이밖에도 도안의 수많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개건공사에 로력적, 물질적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함흥시에서 사는 리광, 리금복부부와 오태식, 리정희, 김형도, 주영선동무를 비롯한 주민들과 근로자들도 많은 지원물자를 안고 현장에 달려와 돌격대원들과 일도 함께 하면서 초등학원, 중등학원개건공사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후대들을 위한 뜨거운 사랑은 어린이교통공원건설장에서도 불타올랐다.

십여개의 칸으로 되여있는 덩지큰 교통안전교육관건물의 내부공사와 자동차놀이장건설, 도로포장 등을 립체적으로 벌려야 하는 어린이교통공원공사는 말처럼 쉽지 않았다.

도인민보안국 과장 림길하동무는 로력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고 자재보장사업을 앞세우면서 공사를 짧은 기간에 결속하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패기있게 해나갔다.

지난해 겨울이 들이닥치기 전에 기본공사를 해제끼기 위한 힘찬 돌격전이 벌어졌다. 인민보안원들은 블로크생산을 앞세우면서 짧은 기간에 기본건물골조를 완성하였다.

리창석, 서철호, 리충성, 김명학동무들은 어린이교통공원건설에 필요한 세멘트와 모래, 자갈을 비롯한 자재를 앞질러 보장하기 위한 수송전투를 스스로 맡아안았다.

이들만이 아니였다.

어떻게 하면 당의 사랑과 은정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더 잘 가닿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공원을 아동심리에 맞게 다양하면서도 특색있게 만들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면서 함흥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의 일군들도 어린이교통공원건설에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바쳤다.

홍철, 리상철동무들은 도로시공을 더 잘하기 위해 도건설재료연구소의 과학자들과 지혜를 합쳐가며 앞선 공법을 적극 받아들이였다.

성천강구역, 흥남구역을 비롯한 시안의 여러 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어린이교통공원건설에 자기들의 깨끗한 애국의 마음을 바치였다.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꾸려진 어린이교통공원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이곳 작업반의 한천규동무는 당의 은정이 깃든 공원관리를 더 잘하겠다는 결심도 피력하였다.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이 훌륭히 일떠세운 함흥초등학원과 함흥중등학원, 함흥어린이교통공원은 원아들과 어린이들의 교육교양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특파기자 김경철

조국의 래일을 위해 바쳐가는 헌신의 자욱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켜 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동대원구역 문수봉초급중학교의 면모가 안팎으로 일신되였다는 소식에 접하고 이곳을 찾은것은 얼마전이였다.

우리를 반겨맞은 녀성부교장은 몇달전까지만 하여도 구역적으로 교육조건이 제일 뒤떨어진 학교들중의 하나였었는데 오늘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앞선 단위로 되였다고 하면서 환한 웃음을 거둘줄 몰랐다. 우리는 이곳 교원들에게서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심장으로 새기고 학교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켜준 동대원구역검찰소의 일군들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정신을 지니고 2년전에는 오래동안 물부족으로 불편을 느끼던 주민들의 물문제를 해결하였고 지난해 충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에도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한 구역검찰소의 일군들이 이 학교의 꾸리기사업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은것은 지난 5월이였다.

그때 생각보다 아름찬 일감을 놓고 문수봉초급중학교 운동장에서는 이들의 격식없는 협의회가 진행되였었다. 중요하게 론의된 문제는 외벽타일붙이기와 색철판지붕씌우기, 화단정리를 비롯한 방대한 외부공사를 어떻게 하면 한달동안에 끝내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쉽게 결심하기가 어려웠다.

물론 힘에 부친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교육의 해인 올해에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과학교육시설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숭고한 뜻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우리의 정신력과 열정을 따라세운다면 못해낼 일이 있겠는가.

책임일군들인 리완우, 김성길동무들의 절절한 호소에 모두가 뜨거운 마음으로 호응해나섰다. 그때부터 이곳 검찰소일군들은 학교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공사를 진척시켜나갔다. 자재구입, 후방사업, 타일붙이기, 질보장… 이러한 말들이 매일매일의 사업총화에서 오고갔다. 책임검사 신용선동무며 안영철, 김철민, 김성철동무들을 비롯한 일군들의 드높은 열의와 헌신속에 외부공사는 계획대로 끝났다.

자신들의 땀과 열정이 슴배인 교사의 새 모습을 바라보는 검찰소일군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한껏 어려있었다. 그런데 교사안으로 들어가 복도와 여러 교실들을 돌아보던 그들의 얼굴색이 하나와 같이 어두워졌다. 겉모습과 너무도 대조되는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하였던것이다.

(외부공사에 많은 품을 들이였는데 내부공사까지 제 해낼수 있겠는가.)

모두가 근심어린 마음으로 교사를 나설 때 소장 리완우동무에게는 새로운 결심이 내려져있었다. 그는 즉시 부소장 조주만동무와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중등교육환경의 본보기, 표준이라고 높이 치하해주신 평양중등학원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부소장이 책임지고 1학년 1반교실을 먼저 훌륭히 꾸리도록 하였다. 불과 며칠사이에 교실벽과 천정이 환해지고 출입문과 창문들이 교체되였으며 책걸상과 교탁이 새것처럼 달라졌다. 멋들어진 칠판도 생겨났으며 산뜻한 전등갓도 설치되였다.

우리도 교실을 하나씩 맡자! 눈앞의 현실앞에서 모든 일군들이 정말 쉽지 않은 결심을 또다시 내리였다. 1학년 3반 교실을 맡은 신용선동무는 자진하여 한개 교실을 더 맡았다. 이 학교에 다니는 자식들은 한명도 없었지만 학부형이 된 심정으로 이들은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이들의 진정에 고무된 학교의 교원들과 학부형들이 힘을 합쳤다.

《제기되는것이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을 인사말처럼 하며 복도와 교실, 실험실들을 경쟁적으로 꾸려주고 현대적인 교육용설비들도 갖추어준 그들모두를 다 소개해달라고 절절하게 말하는 교원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교실에 들어섰다가 학교를 착각한줄 알았다고, 공부가 더 잘되여 정말 좋다고 하는 나어린 학생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듣노라니 생각이 깊어졌다.

몇학년 몇반이라는 교실명판들이 무심히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미래를 위한 일에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면서 남모르는 수고를 바친 검찰소일군들의 얼굴처럼, 이름처럼 안겨오는것이였다.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받드는 길에 값높은 자욱을 새겨가는 그 미더운 모습들을 그려보며 우리는 학교를 나섰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효심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제2일경기 진행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제20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가 태권도전당에서 성황리에 계속 진행되고있다.

여러 몸무게급에 따르는 남, 녀개인맞서기와 특기경기가 19일에 있었다.

태권도경기의 가장 인기있는 종목인 맞서기는 시작부터 관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공격과 방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뛰여돌려차기, 주먹지르기, 뜨며앞차기, 옆차기 등 다양한 타격기술, 완강한 투지와 인내력으로 인상깊은 경기장면들을 련이어 펼쳐보였다.

특기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재치있는 기술동작들을 수행할 때마다 관람석에서는 환호와 찬탄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로 육체기술적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며 우승의 시상대를 향하여 돌진하는 선수들의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시종 열띤 응원속에 치렬하게 벌어진 이날 경기들에서 선수들은 높은 경지에 오른 태권도기술과 무도인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경기는 계속된다.

한편 18일에 진행된 선수권대회 제1일경기성적은 다음과 같다.

남자개인 1단틀
1위 한혁범(조선)
2위 림위석(조선)
3위 알렉싼드르 보드로브(로씨야)
울라지슬라브 자로브(에스또니아)

남자개인 2단틀
1위 김철학(조선)
2위 김광헌(조선)
3위 류보미르 바깔스끼(벌가리아)
스따니슬라브 우씨꼬브(로씨야)

남자개인 3단틀
1위 한대범(조선)
2위 이완 예피모브(로씨야)
3위 쎄르게이 쎄르베뇨브(로씨야)
왕초(중국)

남자개인 4단틀
1위 김남수(조선)
2위 팔 쥐보안(캄보쟈)
3위 신진철(중국)
밀잔 코씨취(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녀자개인 1단틀
1위 율리야 스메드냐꼬바(로씨야)
2위 배경심(조선)
3위 동경(중국)
뜨라브도바 끄리스띠나(체스꼬)

녀자개인 2단틀
1위 리은정(조선)
2위 장요요(중국)
3위 찰로트 제이네 닉슨(웨일즈)
올가 보리센꼬(에스또니아)

녀자개인 3단틀
1위 김향심(조선)
2위 안나 찌렌꼬(로씨야)
3위 꼬베츠까 마르띠나(체스꼬)
왈렌찌나 이오츠꼬바(잉글랜드)

녀자개인 4단틀
1위 김지향(조선)
2위 제닌 하뤈슨(잉글랜드)
3위 마리야 골로츠꼬바(로씨야)
알베나 씨뜨닐스까(벌가리아)

남자단체틀
1위 조선
2위 로씨야
3위 우크라이나, 인디아

녀자단체틀
1위 조선
2위 로씨야
3위 체스꼬, 중국

성, 중앙기관들에서 탄광들을 적극 지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성, 중앙기관 정무원들이 인민경제의 생명선인 석탄공업부문에 대한 지원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고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석탄전선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일군들은 올해 3.4분기에 들어와서도 탄부들의 로력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근기있게 내밀고있다.

2.8직동청년탄광, 명대탄광, 천성청년탄광을 비롯한 순천지구의 탄광들을 찾은 대외경제성, 체육성, 유원지총국의 일군들은 해당 단위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맞게 자체로 마련한 수십종의 부속품들과 물자들을 지원하고 탄부들의 일손도 도와주면서 그들의 전투적사기를 부쩍 높여주었다.

개천탄광, 조양탄광에 나간 국가계획위원회, 전자공업성, 국가해사감독국의 일군들은 증산돌격전에 떨쳐나선 탄부들의 로력투쟁을 고무하였으며 탄차베아링, 용접봉 등 석탄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로동보호물자들을 넘겨주었다.

국토환경보호성과 잠업비단공업국, 재정성, 식료일용공업성의 일군들은 나라의 석탄산을 높이 쌓아가는데 이바지할 일념안고 형봉탄광, 제남탄광의 탄부들에게 많은 지원물자들을 보내주었으며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석탄증산에 이바지하였다.

이밖에 원유공업성, 로동성, 상업성,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수도건설위원회의 일군들도 만리마속도창조의 열풍이 휘몰아치는 득장, 북창, 강동지구의 탄광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잘하고있다.

성, 중앙기관 일군들의 물심량면의 지원에 고무된 각지 탄광로동계급은 석탄증산의 자랑찬 성과를 안고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들어서기 위해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전국자연에네르기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

전국자연에네르기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개막되였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 자연에네르기연구소, 전력공업성 전력공업연구소, 평양이동통신운영국을 비롯한 수십개 단위들이 참가하였다.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개발리용하며 나라의 경제를 에네르기절약형으로 전환시킬데 대한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고 많은 단위들에서 자연에네르기개발과 리용과정에 이룩한 과학기술성과들을 선전보급하고 일반화할 목적으로 열린 전시회에는 1 200여건의 성과자료들이 출품되였다.

태양에네르기와 풍력 및 지열에네르기 등 자연에네르기개발리용분과와 자연에네르기절약분과로 나뉘여 진행되는 전시회에서는 과학기술성과발표와 기술교류사업이 있게 된다.

개막식이 19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 출품단위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 현장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연설이 있었다.

연설자는 모든 참가자들이 자연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생산을 국가적인 전력공업발전전략으로 제시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자연에네르기개발리용을 위한 연구사업을 보다 꾸준하고 진지하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제13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가 진행된다

제13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가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된다.

전람회에는 우리 나라와 수리아, 중국, 꾸바, 이란, 이딸리아, 인도네시아, 윁남, 중국 대북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250여개 회사들이 참가하게 된다.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한 전자, 기계, 건재, 운수, 의학, 경공업 및 식료일용제품들이 출품되는 이번 전람회는 세계 여러 나라들사이의 친선과 교류, 경제적협조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유엔총회 제72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출발

리용호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이 유엔총회 제72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19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박명국 외무성 부상이 전송하였다.

《세계오존의 날》민족토론회 진행

《세계오존의 날》민족토론회가 1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국가계획위원회, 국토환경보호성, 전자공업성을 비롯한 위원회, 성, 중앙기관, 과학연구기관, 현관단위의 일군들과 주조유엔상주조정자 겸 유엔개발계획 상주대표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발언이 있었다.

발언자는 지구의 오존층을 보호하는것이 인간의 생명활동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오존층파괴물질철폐를 위해 모든 나라들이 협조하고 공동행동을 취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이번 토론회가 오존층보호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계기로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염화불화탄화수소철폐관리계획리행에서 현관기관들의 역할》, 《몬트리올의정서 끼갈리수정안에 대하여》 등의 제목으로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회참가자들은 오존층의 파괴가 인류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과 오존층보호에 대하여 소개한 사진들을 돌아보고 록화편집물을 시청하였다.

참대버드나무를 많이 심고 가꾼다

안변군에서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으로 우거지게 할 숭고한 애국의 한마음안고 안변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리용가치가 큰 참대버드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는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잘하여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여야 합니다.》

참대버드나무는 일반버드나무보다 몹시 빨리 자랄뿐아니라 생활력이 강하여 우리 나라의 그 어느 지대에서나 널리 심어 자래울수 있는 나무이다.

산림부문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참대버드나무는 농업부문과 산림부문에서 영농자재와 바람막이숲으로 리용할수 있고 땔나무림을 조성하면 주민들의 땔감문제도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건설용자재와 종이원료를 비롯하여 경제부문과 인민생활향상에 널리 리용할수 있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중의 하나라고 한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빨리 자라고 경제적효과성이 높은 참대버드나무를 대대적으로 심고 가꾸기 위한 사업에로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일군들은 현대적으로 꾸려진 군산림경영소 양묘장과 군안의 공장, 기업소들, 협동농장들과 인민반들에서 참대버드나무모를 심고 가꾸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군당위원회 책임일군을 비롯한 군급기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참대버드나무모를 많이 심고 키우기 위한 사업에 앞장서고있다.

군안의 산림부문 일군들은 군산림경영소 양묘장과 공장, 기업소들, 협동농장들과 인민반들에 자주 나가 참대버드나무모를 키우는 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기술적지도를 잘해나가고있다.

군산림경영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양묘장과 숲사이양묘장들에 참대버드나무모를 많이 심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올해에만도 150만그루에 달하는 나무를 심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군적으로 올해에 550여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여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500여정보의 면적에 참대버드나무모를 심을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놓았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단호히 짓부실 멸적의 의지를 안고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종이 좋은 참대버드나무를 더 많이 심고 가꾸어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바쳐가고있다.

특파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에 즈음하여

꾸바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에 즈음하여 헤쑤스 델 로스 앙헬레스 아이세 쏘똘롱고 주조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9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조선꾸바단결위원회 위원장인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위원장, 류명선, 허용복,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꾸바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헤쑤스 델 로스 앙헬레스 아이세 쏘똘롱고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유훈을 관철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강인담대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나라로 위용떨치고있다고 말하였다.

오늘 인류는 《세계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과 당당히 맞서싸우며 자위적억제력을 갖춘 강국으로 일떠서고있는 조선의 모습을 지켜보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부당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속에서도 조선인민의 생활은 날로 향상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아도 꾸바는 조선과 함께 있을것이며 언제나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다음으로 김영대부위원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지난 기간 두 나라 인민이 반제반미,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속에서 어깨겯고 서로 긴밀히 지지협조하며 가장 진실하고 공고한 친선의 력사를 창조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두 나라 선대수령들께서 함께 마련하여주신 조선과 꾸바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존경하는 라울 까스뜨로 루스동지의 특별한 관심속에 끊임없이 공고발전되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미국의 악랄한 반꾸바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며 당 제7차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형제적꾸바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낼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라울 까스뜨로 루스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꾸바사이의 불패의 전투적친선단결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 참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로씨야련방 원동지역 방문 15돐에 즈음하여 알렉싼드르 마쩨고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19일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국방공업의 창설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보여주는 각종 무기 및 전투기술기재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특명전권대사는 감상록에 조선인민군은 조국과 인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다 갖추고있다고 썼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떠나갔다

김철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19일 평양을 떠나갔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전송하였다.

중국에 갔던 국가관광총국대표단 귀국

조성걸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관광총국대표단이 중국에서 진행된 세계관광기구총회 제22차회의에 참가하고 19일 귀국하였다. 평양역에서 리웅철 국가관광총국 부총국장이 마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외세의존에 명줄을 건자들의 가련한 신세

숨돌릴새없는 련속적인 강타로 이어지고있는 우리의 대미초강경공세로 완전히 수세에 몰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불안과 공포에 빠져 전전긍긍하고있는 속에 괴뢰들내부에서 《남조선소외》론난이 확대되고있다. 《남조선소외》란 한마디로 말하여 현 남조선당국이 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주변나라들로부터 외면과 배척, 따돌림을 당한다는것이다.

남조선에서 이런 론난이 일어나는것은 당연한것이다. 미국은 말로는 《동맹》이니 뭐니 하지만 실제에서는 현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을 로골적으로 비난하면서 괴뢰들을 냉대하고 배척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에서는 트럼프가 아베와만 관계를 밀접하게 가져 현 집권자가 3자공조에서 밀려나고있다, 주변나라들과는 전화통화도 못하고 《대북압박》을 위한 협조를 면전에서 거절당하는 형편이라는 개탄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한편 남조선언론들은 미국이 북과의 대화에 나설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있지만 이 과정에 남조선은 철저히 배제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당황한 남조선당국자들은 《남조선소외》라는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느니 뭐니 하면서 불붙듯 하는 론난을 잠재워보려고 구차스러운 변명을 해대고있다. 이런 속에 남조선집권자까지 나서서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와 수소탄시험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걸고들며 주변나라들에 《초강도대북제재와 압박》을 구걸하는 등으로 저들의 존재감을 과시해보려고 루추하게 놀아대고있다.

한때는 저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운운하며 《북핵문제해결의 운전자역할》에 대해 요란하게 광고하던 남조선당국이 이제 와서는 여기저기에서 물리우고 배척당하다 못해 지어 미국상전에게서까지 구박과 괄세를 받고 외면당하고있는것은 실로 가련하기 그지없다. 그것은 친미사대와 외세의존, 동족대결에 환장한 나머지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에 감히 도전해나서며 주제넘게 놀아댄 반역적망동의 필연적결과이다.

미국이 저들의 손아귀에 명줄이 잡힌 괴뢰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하찮게 여기는가 하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에 있어서 남조선괴뢰들은 저들의 리익을 실현하는데 써먹기 위한 한갖 하수인에 불과할뿐이다.

《미국우선주의》를 제창하는 트럼프는 처음부터 괴뢰들을 탐탁지 않게 여겨왔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트럼프의 독선적이고 일방주의적인 기질의 발로로만 볼수 없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철저한 주종관계, 가장 불평등한 예속관계로서의 남조선미국관계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다.

미국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무슨 《동맹》이니, 《핵심축》이니 하고 괴뢰들의 등을 두드려주군 하지만 그것은 주구들을 더 잘 부려먹기 위한 얼림수이다. 일단 저들에게 불리하다고 여겨지면 아무리 충실한 주구라고 하여도 지체없이 제거해버리는 사나운 상전이 바로 미국이다. 력사적으로 놓고볼 때 미국은 남조선과의 그 무슨 《굳건한 동맹》에 대해 떠들다가도 쓸모가 없어진 괴뢰들을 헌신짝처럼 차버렸다. 이런 실례는 한둘이 아니다.

한때 리승만역도를 극구 추어올리며 《대통령》벙거지를 씌워 실컷 써먹던 미국은 남조선에서 4.19인민봉기가 일어나고 반미기운이 급격히 높아지자 아무런 미련도 없이 손때묻은 주구를 《하야》시켜 타향만리에 내쫓았다. 그후 박정희군사깡패를 내세워 뒤흔들리는 저들의 식민지지배체제를 수습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철저히 짓밟아온 미국은 18년간이나 부린 《유신》독재자를 서슴없이 제껴버렸다.

어디 그뿐인가. 필요할 때마다 겨드랑이에 끼고돌던 늙다리창녀 박근혜역도가 민심의 버림을 받고 탄핵당하게 되자 《퇴진을 늦추어서 얻을것은 없다.》고 하면서 우환거리인 년을 냉담하게 차버렸다.

남조선당국에 대한 미국의 천시는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미국은 현 남조선집권자도 이전 주구들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동맹자》나 《동반자》가 아닌 기껏 써먹다가 아무때나 내팽개칠수 있는 서푼짜리 하수인으로 여기고있다. 그런 셈에도 없는 주구들이 그 무슨 《운전자》니, 《주도권》이니 하며 푼수없이 놀아대니 상전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을수 있는가. 남조선당국으로서는 상전의 박대가 섭섭하겠지만 그것은 외세의존에 명줄을 건 식민지노예의 피할수 없는 운명이다.

비극은 괴뢰들이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주변나라들에서까지 처참한 냉대와 무시를 당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그 무슨 《4강외교》라는데 대해 요란스레 떠들며 마치 저들이 주변나라들과의 협력밑에 핵문제를 주도할듯이 허세를 부렸지만 차례진것이란 보다싶이 멸시와 《대국들밥에 끼운 개구리밥》이라는 듣기에도 무참한 조롱뿐이다.

꼬물만 한 민족적자존심도, 똑똑한 주견도 없이 미국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친미주구의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남조선당국의 추태는 우리 민족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주변나라들은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의 돌격대가 되여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남조선당국의 무모한 《싸드》배치소동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단호한 보복조치실행에로 나오고있다. 결국 미국의 가련한 식민지하수인인 괴뢰들이 주변나라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배척을 받으면서 《남조선소외》론난으로 개코망신을 당하는것은 응당한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상전인 미국의 비위도 맞출래, 저들의 대미추종정책에 아니꼬운 태도를 취하는 주변나라들도 설득할래, 영악스럽게 뒤다리를 잡아채는 보수패거리들의 눈치도 볼래 비지땀을 흘리며 부산스럽게 돌아치는 남조선당국의 궁상스러운 처신은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지경이다.

《남조선소외》론난을 초래한 현 괴뢰집권세력의 망동은 그 무슨 《균형외교》의 간판을 내들었다가 사대와 외세의존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망신과 치욕만 당하고 종당에는 버림받은 개신세가 된 박근혜역도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자멸행위이다.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된다는것은 력사의 진리이다. 남조선당국이 오늘의 수치와 오욕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는 길은 친미사대정책과 외세의존, 동족대결의 악습에서 벗어나 자주적대를 세우고 제 주견으로 살며 민족의 편에 서는 길뿐이다.

남조선당국은 이제라도 민족자주, 우리민족끼리리념의 심오한 뜻을 곰곰히 새겨보고 외세의 바지가랭이에 매달려 스스로 고립과 파멸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망동을 걷어치워야 한다.

온정철

체질화된 사대매국적근성의 발로

최근 남조선당국이 《북핵위협》을 구실로 일본과의 결탁을 강화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집권자는 해외에서 국제회의에 참가한 아베와 회담을 벌려놓고 《북의 계속되는 도발》이니 뭐니 하고 우리를 걸고들면서 쌍방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절실해졌다느니, 《북이 핵과 미싸일을 포기》하도록 《제재와 압박을 최대로 가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악담질하였다. 그런가 하면 과거사문제의 《안정적인 관리》와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에 대해 떠벌이며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공공연히 떠들어댔다.

우리 민족의 천만년미래와 조선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담보하는 동족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를 감히 걸고들며 가증스러운 일본반동들과의 정치군사적결탁에 광분하는 남조선당국의 범죄적망동에 대해 온 겨레는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일본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 지난 세기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저지른 몸서리치는 죄악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지워질수 없다.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의 청장년들을 침략전쟁터로, 죽음의 고역장으로 내몰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침략군의 성노예로 만든 이런 야만의 무리를 인류사는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

그런데도 간특하고 교활하기 그지없는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과거범죄를 한사코 부정하면서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오히려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야망실현에 공공연히 나서고있다. 일본반동들이 군국주의상징인 야스구니진쟈에 집단적으로 몰려다니고있는 사실, 《방위백서》와 교과서들에 독도를 저들의 령토라고 뻐젓이 명기하면서 력사외곡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는 사실도 그것을 말해준다. 지어 일본반동들은 그 무슨 《북미싸일기지에 대한 선제공격》론까지 들고나오며 미국의 부추김밑에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집권자가 간악한 일본의 천인공노할 과거범죄를 《안정적인 관리》라는 간판밑에 덮어버리고 《긴밀한 관계》니, 《미래지향적인 협력》이니 하며 동족을 해치기 위한 공모결탁에 구차스럽게 매달리고있으니 이 얼마나 얼빠진짓인가.

남조선당국자들이 추구하고있는 일본과의 정치군사적결탁강화는 저들의 명줄을 부지할수만 있다면 민족의 백년숙적이든 천년숙적이든 가리지 않고 빌붙는 괴뢰통치배들의 체질화된 사대매국적근성의 발로로서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와 끝까지 대결해보려는 흉악한 속심을 그대로 드러낸것이다.

미국과 함께 일본까지 등에 업고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려는것은 남조선괴뢰들이 오래전부터 추구해온 야망이다. 현 남조선집권세력도 다를바 없다.

한때 박근혜역도가 꾸며낸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에 대해 《국민감정》이니 뭐니 하며 거부하는 시늉을 하던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를 구실로 일본과의 정치군사적결탁에 팔걷고나서고있다. 우리가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를 발사하자 남조선집권자는 황급히 아베와 전화통화놀음을 벌려놓고 《북의 도발》이니, 《깊은 공감과 위로》니 하고 나발질하면서 《대북압박을 극한까지 높여야 한다.》고 피대를 돋구었다. 괴뢰들이 《력사갈등과 안보문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1년간 연장한것도 얼마전의 일이다.

괴뢰들이 이처럼 수치도 무릅쓰고 일본반동들에게 빌붙으면서 정치군사적결탁을 강화하고있는것은 미국주도의 3각군사동맹조작을 재촉하고 미국의 아시아지배전략실현과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남조선을 깊숙이 밀어넣는 매국배족행위이다.

괴뢰들이 미국과 일본에 매달려 《안보》를 구걸할수록 남조선은 엄청난 대가를 치를수밖에 없는 불행하고 가련한 처지에 빠져들뿐이다. 더우기 미일상전들은 날로 급속히 강화되고있는 우리의 핵공격능력앞에 저들의 본토가 시시각각으로 위태로와지는 형편에서 종당에는 저들만 살기 위해 주구를 손외보듯 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결탁하며 그에 아부추종하는것이 전쟁에로 이어질수밖에 없으며 그로 하여 차례질것은 비참한 파멸뿐이라는 교훈을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라설하

괴뢰당국의 《싸드》추가배치에 항의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한반도평화를 위한 싸드반대 대전행동 종교인모임》이 12일 대전시 《의회》앞에서 괴뢰당국의 《싸드》추가배치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발언자들은 당국이 권력을 리용하여 폭력적, 기습적으로 《싸드》를 추가배치한것을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종교유린, 폭력진압으로 《싸드》를 추가배치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초불을 배신한 《정권》이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오히려 적폐를 조장하고있다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
민주주의는 어디 있는

그들은 초불국민의 힘으로 출현한 《정부》라면 마땅히 국민의 힘을 믿고 미국의 압력과 보수세력의 책동에도 굴함없이 평화를 위한 려정을 꿋꿋이 걸어가야 하지 않겠는가고 절규하였다.

《정부》가 《싸드》철회를 시작으로 불평등한 미국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평화를 가로막는 반역적인 적폐세력을 청산함으로써 평화가 실현될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정의와 평화의 정신으로 북에 대한 제재와 대결정책을 철회하고 미국의 압력을 거부하라고 당국에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회견문이 랑독되였다.

회견문은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림시배치》라는 핑게를 대며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하였다.

《정부》가 더이상 국민의 생존을 외세에 의존하여 지키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회견문은 강조하였다.

회견문은 조선반도가 전쟁터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종교인들이 평화를 실현하고 전쟁을 방지하며 《싸드》를 철거시킬 때까지 투쟁할것이라고 밝혔다.

* *

남조선의 《국민일보》에 의하면 얼마전 청와대앞에서 《싸드》배치저지전국행동이 《싸드》추가배치를 강행한 괴뢰당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발언자들은 집권자가 말하던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는가고 규탄하면서 《싸드》배치강행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깨여지고 민주주의는 무너졌다고 개탄하였다.

집권한지 얼마 되지 않은 현 《정부》가 미국에 충실한 《정부》라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밤중에 대규모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싸드》배치를 저지시키기 위해 떨쳐나선 주민들을 야만적으로 진압하였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지난 4월 《싸드》가 처음 배치되였을 때 김천의 주민들이 박근혜역도를 투표하였던 손을 자르고싶다고 한데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지금은 현 집권자에게 투표하였던 자신들이 부끄럽다고 분통해하였다.

그들은 력사는 현 집권자를 국민을 버리고 미국을 선택한 《대통령》으로 기억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오물통에 처넣어야 할 쓰레기언론들

남조선의 보수언론들이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조치들을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북남대결을 앞장에서 고취하고있다.

동족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과 적대의식에 사로잡혀있는 《조선일보》, 《KBS》, 《MBC》를 비롯한 악질적인 보수언론들은 최근 우리가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단행한 정정당당한 핵억제력강화조치들을 《도발》이니 뭐니 하고 마구 걸고들고있다. 동족대결선동에 환장한 괴뢰보수언론들은 나중에는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비방중상하는 모략나발까지 불어대면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북남관계가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 의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의 위기가 날로 고조되고있는 지금 민족의 운명에 대해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언론이라면 응당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대결을 격화시키면서 이 땅에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단죄규탄하여야 할것이다.

그런데 괴뢰보수언론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족의 정의로운 활동을 미친듯이 걸고들면서 북남대결기운을 앞장에서 고취하고있다. 한조각의 량심도 없이 침략적인 외세의 비위를 맞추며 민족을 반역하는 괴뢰보수언론들이야말로 한시바삐 청산해야 할 시대의 오물들이다.

다 망해빠진 저들의 처지는 감감 잊고 감히 우리의 존엄과 체제까지 터무니없이 헐뜯으며 대결에 광분하는 괴뢰보수언론들의 추태는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미국과 그에 적극 추종하는 남조선괴뢰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하여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에 놓여있다. 우연하게 튀는 한점의 불꽃도 전면적인 핵전쟁의 불길로 번져질수 있다는것이 내외분석가들의 일치한 평가이다.

이런 엄중한 사태하에서 괴뢰보수언론들이 동족을 함부로 걸고들고 대결을 고취하는 망동을 계속 부리는것은 사실상 전쟁위기를 부채질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민족의 머리우에 항시적으로 떠도는 전쟁의 재난을 막아주고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주는것이 바로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이라는것은 력사와 현실이 웅변으로 립증해주고있다.

그런데도 괴뢰보수언론들이 엄연한 사실을 한사코 외면한채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을 운운하고 《북핵제거》에 대해 매일같이 떠들어대는것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사이비언론들의 추악한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보여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지난 시기 보수집권세력을 등에 업고 온갖 잡설과 모략선전으로 민심을 기만우롱하여온 쓰레기매문가들을 철저히 매장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언론적폐청산투쟁에 적극 나서고있다. 얼마전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KBS》, 《MBC》방송의 경영우두머리들이 사퇴할것을 요구하는 초불시위투쟁이 벌어진것은 더러운 보수매문가들에 대한 인민들의 환멸과 분노심의 발현이다.

이날 한 초불시위참가자는 반인민적인 악정을 일삼아온 보수패거리들과 그에 추종하며 민심을 외면해온 《KBS》, 《MBC》방송 매문가들의 이름을 렬거하며 이자들을 잊지 말고 끝까지 심판하고 단죄해달라고 준절히 호소하였다. 여론을 오도하면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실현을 가로막고 민족의 머리우에 전쟁의 재앙까지 몰아오는 괴뢰보수언론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으려는것이 남녘민심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북남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민족을 반역하는 괴뢰보수언론들의 죄악을 단죄규탄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장정철

미제공중비적들

남조선상공에서 핵폭탄투하훈련에 광분

보도들에 의하면 18일 괌도로부터 남조선상공에 날아든 미제침략군의 《B-1B》핵전략폭격기 2대와 《F-35B》스텔스전투기 4대가 괴뢰공군의 전투기들과 합동군사훈련을 감행하였다.

호전광들은 이번 훈련이 우리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발사훈련에 대응한것이라고 떠들며 핵폭탄투하훈련에 날쳤다.

이에 앞서 미제의 이 공중비적들은 일본 규슈주변상공에서 《자위대》의 전투기들과 편대를 짓고 공동훈련을 벌려놓았다.

미제와 일본반동들, 남조선괴뢰들은 이날의 합동훈련을 통해 저들의 군사적결탁관계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되고있는 우리의 핵공격능력앞에서 패배의 위기를 절감한 미국이 주구들까지 동원하며 허세를 부리고있지만 그것은 비루한 명줄을 부지해보려는자들의 단말마적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늘어나고있는 어린이학대행위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학대행위가 날로 우심해져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

최근년간 남조선에서는 어린이학대범죄자수가 2013년에 459명, 2014년에 1 019명, 2015년에 2 691명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괴뢰법무부가 밝힌 자료에 의하더라도 지난해 어린이학대범죄자수는 그 전해보다 70%나 증가하여 4년만에 18배로 뛰어올랐다.

남조선에서 만연되고있는 야만적인 어린이학대행위는 개인리기주의사상에 물젖은 썩고 병든 사회가 낳은 필연적귀결이다.

【조선중앙통신】

만리마시대를 힘있게 추동하는 정보화의 열풍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17》을 돌아보고

얼마전 우리는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17》이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 3대혁명전시관을 찾았다. 온 나라에 세차게 굽이치는 정보화의 열풍을 반영하는듯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전람회장에 들어서니 《만리마시대》, 《정보화열풍》이라는 큼직한 표어들이 정신이 번쩍 들게 안겨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우리와 동행한 국가정보화국의 일군은 저 표어들이 그대로 이번 전람회를 상징한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람회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전람회에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화성과들이 출품된데 대하여 알려주었다. 참가단위만 해도 240여개이고 전시된 정보화성과들과 정보기술제품은 820여건이라는 수자들이 무심히 들려오지 않았다.

물밀듯이 들어서는 참관자들과 함께 우리가 처음으로 향한 곳은 교육정보화성과전시대였다. 전국적으로 교육의 정보화실현에서 뚜렷한 자욱을 새긴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초등학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이 내놓은 성과들이 눈길을 끌었다. 희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콤퓨터에 앉아 직접 시험을 쳐보면서 새로 개발도입된 대학입학원격시험체계의 실력평가방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체험해볼수 있게 한 대학입학시험장이며 교육과학과 경영관리, 교무행정관리사업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성과들, 전국교육부문의 일원화체계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한 성과와 다기능화, 정보화된 교실들과 현대적인 교육설비, 실용적인 교육조건을 마련하여 전국적인 본보기단위의 영예를 지닌 평양초등학원의 성과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주체교육의 새로운 발전면모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 식 조작체계 《붉은별》개발성과가 전시된 곳으로 이어졌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새로 개발된 조작체계의 우월성에 대하여 해설해주는 청년과학자들의 모습이 미덥게 안겨왔다. 보안과 성능, 안정성, 편리성이 훨씬 개선된 우리 식 조작체계 《붉은별》의 핵심적이며 중요한 부분들을 모두 우리의 미더운 청년과학자들이 자체로 개발하였다는 긍지높은 이야기를 들으며 참관자들은 찬탄의 목소리들을 아끼지 않았다.

새롭게 비약한 프로그람기술의 위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밝고 창창한 내 조국의 앞날에 대한 희열과 랑만을 안고 우리는 통합생산체계개발성과를 보여주는 전시대들에로 참관을 이어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높이 평가해주신 류경김치공장의 통합생산체계를 비롯하여 여러 단위들에서 은을 내고있는 정보화성과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누구나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경제의 정보화실현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가를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국가과학원전시대에서 우리는 지능정보연구소에서 내놓은 과학기술전당 원격학술토론체계와 문답봉사체계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성과들을 알게 되였다. 참관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주는 가치있는 정보화성과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추어나갈 때 지식경제강국의 래일은 더 앞당겨지게 된다는것이였다.

우리는 국가품질감독위원회전시대에서도 이것을 확신할수 있었다. 지난해 검사검역사업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10대최우수정보기술기업으로 평가되였던 평안북도수출입품검사검역소의 일군들과 검사검역원들이 개발한 검사검역전람도 이러한 성과들중의 하나이다. 지능형손전화기나 판형콤퓨터에 구축된 자료기지를 리용하여 검사검역사업의 정확성과 신속성, 객관성을 보장하고있다는 이야기도 그렇고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는 남포수출입품검사검역소의 성과에 대한 이야기도 참관자들에게 커다란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더우기 우리를 기쁘게 하는것은 이러한 성과들이 다 자강력제일주의기치밑에 자체의 힘과 기술을 믿고 투쟁해나가는 과정에 이룩된 정보화성과들이라는것이다.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 지능화하고 공장, 기업소들을 무인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은 이렇게 자기 힘을 믿고 떨쳐일어난 자강력의 강자들에 의하여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있는것이다.

이뿐이 아니였다. 전자공업성 아래 여러 단위들에서 개발한 공업용콤퓨터와 지능형전원관리콤퓨터, 광학식전자칠판도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다. 특히 강원도정보화관리국에서 내놓은 원산구두공장 경영업무지원체계,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 경영업무관리체계 등의 정보화성과들은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에 대하여 더 잘 알게 하였다.

돌아볼수록 《만리마시대와 정보화열풍》이라는 이번 전람회의 주제가 가슴벅차게 안겨왔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정보화수준이 비할바없이 높아졌으며 그 발전전망도 대단히 크다는것을 가슴뿌듯이 느끼게 하는 전람회였다.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17》, 의의깊은 이 전람회장을 참관하면서 우리는 머지않은 앞날에 우리 조국이 과학기술강국, 지식경제강국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게 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본사기자 박현

인간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이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효능높은 약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찾았던 우리는 그곳 의료일군들로부터 감동깊은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시기 이곳 의료일군들은 유선암수술후 재발, 전이된 환자들에게 화학적으로 합성한 항암제를 쓸것을 건의하였다고 한다. 비록 그것이 부작용은 심했으나 그들은 지금껏 어쩔수 없는 일로 여겨왔다. 그런데 유선암수술후 재발, 전이된 일부 녀성들이 우리 나라에서 개발한 금이온항암주사를 맞고 생의 활력을 다시 찾은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은 깊어졌다.

처음에는 좀체로 믿어지지 않아 몇해동안 림상검토를 해본 결과 의료일군들은 금이온항암주사약이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유선암수술후 재발, 전이를 예방 및 치료한다는것을 확인하였다. 더우기 인체의 저항력을 낮추는 일부 화학적인 항암제와는 달리 면역기능을 높인다는 사실은 그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흥분이 앞서 우리는 효능높은 금이온항암주사약을 만들고있는 의학연구원 방사선의학연구소를 찾았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소장 리성준동무는 뜻밖에도 어느 한 단위의 연구사인 박창현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8년전 어느날 박창현동무는 최신문헌자료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 문헌자료에는 금이 인체내에서 암세포와의 결합능력이 높을뿐아니라 암세포의 분렬, 증식을 억제시킨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며칠후 그는 해당 단위의 일군인 박영일동무와 함께 본격적인 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사실 그에게 있어서 그 길은 전혀 생소하였다.

당시는 나라가 어려운 때여서 연구사업에 필요한 모든것이 부족하였다. 제일 큰 애로는 금으로 항암약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 가르쳐줄 사람도, 참고할만 한 책도 없는데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에서는 어떤 고난과 시련도 능히 뚫고나갈수 있게 하는 소중한것이 맥동치고있었다.

바로 그것은 우리 당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좋은것이라면 누구든 이 길에 나서서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는 불같은 자각이였다.

그로부터 몇해후 해당한 약물을 개발한 박창현동무는 고려의학연구원의 연구사들과 함께 충분한 기초실험을 하였다.

결과는 성공적이였다.

흔히 과학자들은 새로운 발명을 하면 그것을 한시바삐 학계에 내놓고싶은 강한 충동에 휩싸이게 된다고 한다.

그 시각 박창현동무의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는 림상검토를 서두르지 않았다.

금제제는 잘못 만드는 경우 다른 요인에 의해 두드러기와 같은 일련의 부작용을 나타낼수도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그는 수백일동안 자기의 몸에 주사를 놓으며 해당한 약물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그후에야 그는 림상검토를 제기하였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좋은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온 박창현동무를 의학연구원 방사선의학연구소 소장 리성준, 실장 김영남동무들과 고려의학연구원 실장이였던 박용훈, 연구사 박현호동무들이 적극 도와나섰다.

그렇게 되여 개발된 금이온항암주사약이였다.

취재마감에 만난 선교구역 선교1동에서 사는 리금화녀성이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의 심금을 울렸다.

7년전 봄 그는 수술후 유선암이 좌쇄골부위림파절에 전이되였다. 그는 그때부터 해마다 금이온항암주사를 맞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병조가 수그러들어 생의 활력과 웃음을 다시 찾았다는것이 아닌가.

녀성은 이야기를 마치면서 불과 몇해밖에 살수 없을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자기가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고마운 사람들에 의해 보다 건강한 몸으로 한가정의 안해로서, 어머니로서의 행복한 삶을 보내고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누가 맡겨준 과업은 아니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 당이 아끼고 사랑하는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일이기에 스스로 맡아나선 박창현동무.

그는 비록 60살이 지났지만 금이온항암주사약의 치료효과를 더욱 높일 목표를 세우고 오늘도 정력에 넘쳐 남모르는 탐구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본사기자 방경찬

독자의 편지

뜨거운 혈육의 정 그대로입니다

제가 수풍로동자구에 살고있는 권은주녀성을 알게 된것은 몇해전 어느날이였습니다. 우연히 저의 안해로부터 제가 특류영예군인이라는것을 알게 된 권은주녀성은 집에 찾아와 병상태와 살림살이형편을 다심하게 헤아려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권은주녀성과 나어린 두 아들의 발걸음은 때없이 우리 집뜨락으로 이어지군 하였습니다.

권은주녀성은 제가 언제나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혁명적인 도서들과 여러가지 새 책들을 자주 가져다주면서 락천적으로 생활할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식들에게 저에 대해 이야기해주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이 얼마나 값높은 삶인가를 강조해주군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리용할 사륜차며 귀한 약재들과 부엌세간들, 텔레비죤수상기를 비롯한 가정용품들, 김장남새에 이르기까지 도맡아 해결해준 고마운 그 진정을 어떻게 한두마디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겠습니까. 삼복철이면 제가 입맛을 잃을세라 여러가지 맛있는 민족음식들을 마련해가지고왔고 해마다 온천치료를 받을수 있는 모든 준비도 빈틈없이 갖추어주었습니다.

비록 수십리밖에 떨어져있어도 권은주녀성과 저의 가정은 떼래야 뗄수 없는 혈육의 정으로 굳게 이어져있습니다.

고마운 그 진정앞에서 저와 저의 안해는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한식솔로 행복하게 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이 고마운 품을 떠나서 우리는 못삽니다.

삭주군 청수로동자구
81인민반 김혜

미국은 정세격화의 주범이다

세계언론들과 전문가들이 최근시기에 벌어진 사태들을 놓고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상태에로 몰아가고있는 장본인은 미국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얼마전에 미국은 두차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진행된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걸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조작해냈다. 이어 최근에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을 걸고 또다시 유엔《제재결의》를 꾸며냈다.

이와 관련하여 인디아신문 《힌두스탄 타임스》는 트럼프가 선임자들이 수십년간 실패한 대조선제재압박에 매여달리고있는데 그러한 전면적인 경제봉쇄는 전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비난하였다. 미국의 한 전문가도 《제재는 전쟁행위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거수기들을 동원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조작해낸 《제재결의》가 조선반도의 긴장격화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된다는 소리이다.

국제법적으로 따져보아도 한 나라, 한 민족을 완전히 멸살할것을 노린 제재, 봉쇄책동은 전쟁범죄에 해당된다.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전》에는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면서 그 어떤 리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경제적인 강압조치를 취하며 그 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로 된다고 규제되여있다.

보복성을 띤 제재를 가하는것도 국제법위반이며 특히 주권국가에 대한 봉쇄형의 제재는 침략행위로서 국제법에 전면배치되는것이다.

미국은 우리 국가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무역활동을 완전히 가로막으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 국제적인 제재망의 빈구멍을 찾아 메운다고 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유엔마당에서 야만적인 《제재결의》들을 조작해냈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우리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이다. 그것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고 우리 인민의 생존 그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흉악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다.

전쟁행위에 해당되는 유엔《제재결의》를 련속 조작해내는 미국이 결코 평화수호자일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이다.

미국이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가장 악랄하고 비렬한 제재압박의 도수를 극도로 높이고있는 조건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초강경대응은 불가피한것이다.

우리 공화국이 단행한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은 철저히 자위권에 속하는것으로서 합법적이고 정당한것이다.

프랑스의 한 인터네트홈페지에 실린 기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미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였기때문에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은 미국의 주장과는 반대로 국제법에 전혀 위반되지 않는다. 누구도 조선의 행동을 막을 법적권한이 없으며 더우기 유엔안전보장리사회 5개 상임리사국들모두가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는 조건에서 미국은 물론 유럽동맹도 평양의 핵계획을 비난할 처지가 못된다. 인디아와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가지고있으며 이스라엘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주변의 아랍나라들과 전쟁상태에 있지만 누구도 위협이라고 추궁하지 않는다. 유독 조선이 핵무기를 가진데 대해서만 인류에 대한 위협이라고 떠들고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옳은 평이다.

우리 나라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여야 할 의무가 없다.

유엔헌장과 현존국제협약들 그 어디에도 핵시험이나 탄도로케트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되여있지 않다.

우리 국가가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진행한데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제재압박을 가해야 할 법적근거를 가지고있지 못하다. 비난할 리유조차 없다.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를 문제시하면서 제재, 봉쇄책동에 매여달리는것이야말로 고의적으로 정세를 긴장시키고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미국과 그에 놀아나 설설기면서도 대국으로 자처하는 나라들은 마치도 유엔《제재결의》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필요한듯이 나발을 불어대고있다.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진 자들의 행위를 합리화해보려는 변명에 불과하다.

유엔무대에서 불법비법의 온갖 망동을 다 저지르고있는 미국은 지금 뻐젓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공갈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트럼프패는 우리의 전략적지위를 인정하고 자중할 대신 《동맹국보호의무》니 뭐니 하고 허세를 부리며 조선에 대한 핵공격가능성에 대해서까지 뇌까려대고있다. 그를 위하여 신형전술핵무기의 개발, 생산에 박차를 가할것이라고 광고하고있다. 조선반도에 2척의 핵항공모함을 파견하여 합동군사연습을 벌릴수 있다느니, 핵전략폭격기들을 정기적으로 들이밀겠다느니 뭐니 하는 호전적망발들이 미군부에서 거침없이 튀여나오고있다. 최근 일본 요꼬스까의 미해군기지에 있던 핵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가 기여나온것도 그에 따른것이다. 미제의 《오하이오》급핵잠수함과 핵전략폭격기 《B－1B》, 스텔스전투기들인 《F－22》, 《F－35》등 전략자산들이 조선반도를 목표로 출동하였다.

정세는 또다시 일촉즉발에로 치닫고있다.

로씨야의 한 정치군사전문가는 미국이 조선반도의 긴장격화의 요인이 조선의 핵시험과 로케트발사에 있다고 떠드는것은 한갖 구실에 불과하며 근본원인은 미국에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인물들만 있는데 있다고 하였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핵공갈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정세가 날로 격화되는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미국은 전대미문의 반공화국제재압박과 끊임없는 무력증강소동으로 조선반도를 불과 불의 대결장으로 만들고있는 정세격화의 장본인이다.

미국과의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보장하여 미집권자들의 머리속에서 조선반도에서의 군사력사용에 대한 미련을 제거해버리는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갈망하고 국제사회가 바라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방도이다.

주체조선은 국가핵무력완성의 종착점에 거의 다달았다. 머지않아 미국집권자들의 입에서 조선에 대한 군사적선택따위의 망언들이 사라지게 될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아메리카제국의 침략야욕을 억제하는 이 행성의 명실상부한 평화수호의 보루로 될것이다.

국가핵무력완성목표를 향하여 곧바로 돌진하려는 우리 천만군민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리 효 진

위험한 군국주의재무장기도

일본이 전략무기에 눈독을 들이고있다.

얼마전 일본자민당 총재외교특별보좌 가와이가 기자들과 만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위대》가 조선과 중국도 가지고있는 중거리탄도미싸일과 순항미싸일을 보유하는 문제를 론의해야 한다고 떠벌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정책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 리사장과 만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위대》에 순항미싸일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것은 해외팽창야망실현을 위해 그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군국주의재무장을 다그치려는 일본극우익세력들의 파렴치한 침략적기도의 발로이다.

일반적으로 중거리탄도미싸일은 사거리가 1 000－5 000㎞로서 그 거리안에 있는 상대측의 전략적대상물들을 타격할수 있는 전략무기로 알려져있다. 만일 일본이 중거리탄도미싸일을 보유하는 경우 중국과 로씨야의 중심지역이 그의 타격권안에 들어가게 된다.

순항미싸일은 저공으로 대상물에 접근하여 기습타격하는 효과성이 좋은 무기이다. 일본은 먼거리타격이 가능한 미국의 《토마호크》순항미싸일을 사들이려 하고있다. 이 순항미싸일은 사거리가 수천㎞이라고 한다. 《토마호크》를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들에 탑재하는 경우 조선반도를 훨씬 넘어 중국과 로씨야의 넓은 지역이 일본의 타격권안에 들어가게 된다.

가와이는 아베와 가까운 인물이다. 가와이의 주장은 곧 아베정권의 립장을 대변한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이 군사력강화방향을 공격위주로 전환한지는 오래다. 해상《자위대》는 이지스구축함, 경항공모함을 비롯하여 숱한 전투함선들을 가지고있다. 항공《자위대》도 공격무기들로 장비되였다.

지난 6월 일본국내기업이 처음으로 제조한 최신에스텔스전투기 《F－35》가 공개되였다. 시험비행을 거쳐 올해중으로 방위성에 넘겨질것이라고 한다. 명백한것은 일본이 지역나라들을 자기의 타격권안에 넣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다는것이다.

일본극우익세력들이 떠들어대는 《조선위협론》은 재무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

랭전종식후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공갈에 대처하여 우리 나라가 자위적조치들을 취할 때마다 일본반동지배층은 《위협》나발을 자지러지게 불어대군 하였다.

그를 통해 정치군사적리익을 챙기였다.

우선 군사대국화를 급속도로 다그쳤다. 다음으로는 국내의 파쑈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전쟁국가를 조작할수 있는 법적기반을 적지 않게 닦아놓았다.

지난 7월에 우리 나라가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두차례에 걸쳐 단행하였을 때 일본은 렬도에 당장 무슨 큰 변이라도 생기는것처럼 요란스레 떠들며 보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주민대피요 뭐요 하며 소란을 피웠다. 8월말 우리 전략군이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 진행하였을 때에도 언론들을 내세워 그 무슨 《위협》으로 과장하면서 곳곳에서 주민대피훈련을 벌려놓았다.

그와 함께 적기지공격능력보유타령, 전략무기보유타령을 요란하게 늘어놓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군사대국화를 전략무기보유라는 새로운 단계에서 추진할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은것이나 같다.

이를 위해 군비를 확장하려 하고있다. 최근에 일본집권자는 방위성청사에서 《자위대》의 고위인물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부단히 검토할데 대해 훈시하였다.

미국의 하수인에 불과한 일본이 전략무기들을 보유하여 재침의 길에 나서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는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침략야욕이 극도에 달하고있음을 실증해준다.

전범국, 패전국인 일본이 채신하지 못하고 재무장에 광분하는것은 심상히 볼 일이 아니다.

라 명 성

용납될수 없는 도발행위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불량배국가 미국이 추종세력들과 주대없이 놀아대는 어중이떠중이들을 총동원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또다시 불법무법의 대조선《제재결의》를 조작해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도발이다.

이번에 미국이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을 걸고들었는데 그자체가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우리 국가의 이번 수소탄시험은 철두철미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강행과 핵위협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적조치이다. 미국과 힘의 균형을 맞추지 않고서는 조선반도에서 짙어가는 핵전쟁발발위험을 가셔낼수 없고 평화를 수호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주권존중과 자위권행사를 원칙으로 못박은 유엔헌장에 비추어보아도 우리의 핵무력고도화조치들은 그 누구의 시비거리로 될수 없다.

우리 공화국의 핵억제력이 비상히 강화되고있는것으로 하여 동북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우심해지던 미국의 핵전쟁도발망동이 억제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있다. 우리 국가의 이 공적은 마땅히 세인의 격찬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몰아붙이였다.

그들의 론거대로 우리의 핵시험이 문제시되여야 한다면 미국부터 제재의 대상이 되여야 한다. 세계에서 핵시험을 제일먼저 하고 제일 많이 한것도, 핵무기를 제일먼저 사용한 나라도 미국이며 방대한 자금을 탕진하면서 핵시험을 끊임없이 계속하고있는 나라도 다름아닌 미국이기때문이다.

얼마전에도 미국은 네바다주에서 《B61－12》핵폭탄시험을 강행하였다. 미국이야말로 세계의 규탄을 받아야 할 핵망나니국가이다. 이런 불량배가 국제무대에서 차지하고있는 특권적지위를 악용하여 추종세력들과 쑥덕공론을 벌리며 날조해낸 《제재결의》는 절대로 허용될수도 용납될수도 없다.

우리가 살아숨쉬는것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날강도적본성, 흉악한 속심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기어이 말살해보려고 미쳐날뛰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에게는 말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이라고 오직 강력한 힘으로 다스리고 길들여야 한다.

최근 우리 전략군은 핵무력전력화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발사훈련을 진행하였다. 여기에는 무분별하게 날뛰는 미국을 무자비하게 징벌하려는 우리 혁명무력의 강한 의지가 비껴있다.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로 우리를 놀래우거나 되돌려세울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저 하늘의 별을 따오겠다고 하는것만큼이나 어리석은것이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를 비롯하여 서방의 언론들도 조선에 대한 제재의 범위는 확대되고 도수가 높아졌지만 조선의 핵무기개발은 완성단계에 들어섰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대조선제재가 실패하였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조선은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국가이다. 참혹한 전쟁을 이겨냈고 1990년대의 고난도 극복하였다. 조선에는 제재가 통하지 않으며 제재에 계속 매달리는것은 시간랑비이다. 군사적선택은 무모한것이다라고 전하였다.

우리 국가의 최종목표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참다운 국제적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 미국이 감당하지 못할 핵반격을 가할수 있는 군사적공격능력을 계속 질적으로 다지며 이미 선택한 길을 따라 곧바로 질주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립장은 확고하다.

최후승리를 눈앞에 바라보며 폭풍노도쳐 나아가는 우리의 힘찬 진군을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의 악랄한 제재와 압박, 대국주의자들의 비렬한 방해책동속에서도 마음먹은것을 드팀없이 해냈다.

우리는 부닥치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뚫고헤치며 승리에 승리만을 거듭하여왔다. 이것은 전통으로 되였으며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 천만군민은 결사의 각오와 멸적의 기상을 안고 선군조선의 본때를 보여줄 시각만을 기다리고있다.

미국은 쌓이고쌓인 우리 천만군민의 분노가 총폭발하는 경우 어떤 참혹한 후과가 차례지겠는가 하는것을 놓고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미국이라는 땅덩어리가 대양건너에 있다고 결코 무사할수는 없다.

리 학 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로정

수리아언론들 특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수리아언론들이 7일과 9일 특집하였다.

중앙TV방송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방송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거둔 자랑찬 성과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내보내면서 주체의 핵강국,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고있는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찬양하였다.

중앙라지오방송은 백두산천출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이 창건후 근 70년간 승리와 영광의 한길만을 걸어온데 대하여 특별보도하였다.

사나통신은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은 다 인민을 위한것이라고 하면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신문 《알 와탄》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과 발전력사는 김일성주석의 건국업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주석께서는 조선을 자주적인 국가로 건설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화국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사회주의사상과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모든 활동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해나가도록 이끄시였다.

또한 인덕정치를 베푸시여 조선의 사회정치적지반을 강화하시고 선군혁명령도로 군사적지반을 철통같이 다지시였다.

신문 《티슈린》은 김일성주석의 건국위업은 김정은령도자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김정은각하는 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다함없는 신뢰를 받고계시는 걸출한 령도자이시다.

그이께서 펼치시는 인민사랑의 정치는 그이의 투철한 인민관에 기초하고있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신다.

인민을 위하여 일군들도 령도자도 있다는것이 그이의 좌우명이다.

인민사랑은 김정은각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으로 되고있으며 그이께서 펼치시는 정치의 최고원칙, 최상의 목표로 되고있다.

신문 《알 바아스》는 공화국이 지난 69년간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책동속에서도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해온데 대하여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오늘날 조선의 위력은 날로 강화되고있다.

조선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도 어쩌지 못하는 강국이다.

조선의 첫째가는 위력은 일심단결이다. 또 다른 하나의 위력은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자강력이다.

조선인민은 나라의 경제, 군사적위력을 세계가 상상할수 없는 수준에로 발전시킬수 있다고 굳게 믿고있다.

신문 《알 사우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걸어온 69년간은 곧 승리와 영광의 로정이다. 조선은 불패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되였다. 조선인민은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최후승리를 확신하고있다고 썼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금연조치

탄자니아의 잔지바르에서 최근 금연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담배관련선전물을 게재할수 없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한 질병환자가 늘어나는것을 막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한다.

녀성들과 어린이 건강보호노력

르완다에서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성과를 거두고있다.

15일 이 나라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출생시 애기사망률이 2005년의 1 000명당 86명으로부터 2015년에 32명으로, 산모사망률은 2000년의 10만명당 1 071명으로부터 2015년에 210명으로 줄어들었다.

린비료수출 증대

마로끄에서 상반년기간에 린비료수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 증대되였다.

12일 이 나라 대중보도수단이 전하였다.

교육발전조치

가나정부가 11일 고등교육부문에서 무료교육을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전국적범위에서 약 40만명의 대학생들이 그 덕을 보게 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재능있는 지식인들을 더 많이 키워 그들이 나라의 경제발전을 주도하도록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현재 이 나라에서는 자체의 가공업을 발전시켜 원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자연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라오스의 소목장

주권침해를 용납하지 않을 립장 강조

메히꼬대통령 엔리께 뻬냐 니에또가 2일 한 연설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주권침해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립장을 강조하였다.

메히꼬는 트럼프행정부와의 관계문제에서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자기 나라는 미국뿐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주권과 국가리익을 수호하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무모한 대이란제재소동

미국이 이란을 반대하는 제재소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14일 미재무성은 탄도미싸일계획과 미국을 반대하는 싸이버공격에 관련되여있다고 걸고들며 이란인들과 그와 련관된 다른 나라 국적의 기업체들을 포함하여 11개의 대상들에 제재를 가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미국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회사들과 개별적인들의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들과 이란회사들사이의 거래가 전면금지된다고 한다.

미국의 비난을 배격

베네수엘라외무성이 15일 성명을 발표하여 자기 나라의 반마약투쟁에 대한 미국의 비난을 배격하였다.

최근 미국이 그 무슨 《보고서》라는데서 베네수엘라의 반마약투쟁을 실패작으로 헐뜯은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주권국가들의 정책적문제를 제멋대로 평가하는 미국의 일방적인 처사를 준렬히 단죄하였다.

미행정부의 이른바 《반마약투쟁》은 사실상 자기의 정치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폭로하고 성명은 이번 보고서에도 마약과의 투쟁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견지하고있는 베네수엘라를 고립시키려는 불순한 기도가 깔려있다고 강조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빈궁 심화

프랑스에서 최근 빈궁이 심화되고있다.

14일 이 나라의 한 조사단체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57%가 빈궁위기를 겪고있다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1년전의 조사결과에 비해 2% 증대된것이라 한다.

실업자 증대

에스빠냐에서 8월에 실업자수가 그 전달에 비해 4만 6 400명 더 늘어났다.

4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또한 일본에서 7월에 실업자수가 그 전달에 비해 1만명 더 증대되였다. 8월 29일 이 나라 총무성이 밝혔다.

물가 인상

일본에서 상품가격이 급격히 뛰여오르고있다.

13일 이 나라 중앙은행은 8월에 전국적인 상품도매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9% 비싸졌다고 밝혔다.

한편 도이췰란드에서 물가가 계속 오르고있다. 13일 이 나라 련방통계국이 밝힌데 의하면 8월에 식료품가격만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 높아졌다.

에스빠냐에서도 물가가 계속 오르고있다. 8월 30일 이 나라 통계국은 8월에 소비자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높아졌다고 밝혔다.

총기류범죄

미국 텍사스주의 북부지역에서 10일 류혈적인 총기류범죄사건이 일어나 사회적공포가 조성되였다. 이날 한 남성이 살림집에 뛰여들어 총탄을 란사하여 8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같은 날 마싸추세츠주의 보스톤시에서도 정체불명의 범죄자가 총기를 휘둘러대는 바람에 2명이 부상당하였다.

한편 미국 뉴멕시코주의 클로비스시에 있는 한 도서관에서 8월 28일 총기류범죄가 발생하였다. 이날에 있은 총격사건으로 2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부상당하였다 한다.

녀성차별 우심

뉴질랜드에서 녀성들에 대한 차별행위가 성행하여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

8월 29일 이 나라의 한 경제연구소는 임금지불에서 녀성차별이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고 하면서 녀성근로자들이 남성들보다 평균 16% 적은 임금을 받고있는데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규탄배격받는 훼방군

세계에서 절대군주행세를 하고있는 미국이 도처에서 배척당하고있다.

지난 4일 캄보쟈수상 훈 센이 자국내정에 간섭하면서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해 반대파세력과 공모하고있는 미국을 규탄하였다. 얼마전 캄보쟈에서 정부전복을 기도하던 반대파세력의 두목이 체포되자 미국은 성명을 발표하여 《중대한 우려》를 표시한다느니 뭐니 하며 주제넘게 놀아댔다. 이것이 캄보쟈정부의 분노를 자아낸것이다. 캄보쟈수상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써먹던 《색갈혁명》을 자국에도 도입하려 한다고 폭로하면서 나라의 평화를 파괴하려는 불순분자들을 철저히 소탕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자주적인 캄보쟈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음으로양으로 책동하여왔다. 최근시기에는 그것이 도를 넘어서고있다.

다음해 이 나라에서는 총선거가 진행된다. 미국은 이것을 계기로 현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갖은 모략과 음모를 꾸미는데 총력을 집중하고있다. 그 일환으로 캄보쟈에서 활동하고있는 미국의 비정부단체들을 내세워 이 나라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꾀하고있다. 자주권을 귀중히 여기는 나라라면 이것을 허용할리 만무하다.

캄보쟈에서 《민족민주협회》의 간판을 쓰고 간첩활동을 해온 미국의 비정부단체가 캄보쟈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야당세력과 결탁한 사실이 드러나 이 나라에서 쫓겨났다. 이보다 앞서 미국의 다른 한 비정부단체도 《어린이성노예의 악폐》를 없앤다고 하면서 캄보쟈녀성들을 모독하는 기록영화제작에 앞장섰다가 추방당하였다. 이번에 캄보쟈에서 정부전복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반대파세력두목의 뒤에도 바로 미국이 있다고 한다.

캄보쟈정부가 반대파세력들을 부추겨 정권교체를 실현하려는 미국의 모략책동을 준렬히 단죄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나가는것은 당연하다.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침해하는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책동은 베네수엘라에서도 강력한 반대배격에 부딪치고있다.

반미자주적인 정치를 실시하고있는 베네수엘라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고있는 미국은 어떻게 하나 마두로정권을 뒤집어엎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이미 폭로된바와 같이 미국은 이 나라 반동세력들에게 지원을 주면서 그들을 폭력적인 반정부시위에로 추동질하여 내부정치정세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마두로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우익반동들의 악랄한 간섭책동을 짓부시고 전국적인 선거를 통해 헌법개정을 위한 제헌민족회의를 성과적으로 수립하였다. 이 나라 정세가 저들이 의도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흐르는데 약이 바싹 오른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선택안을 배제하지 않을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이 나라를 군사적위협공갈로 굴복시켜보려고 꾀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로골적인 정부전복기도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켰다.

꾸바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위협을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세차게 울려나왔다.

군사적위협공갈이 통하지 않게 되자 미국은 상투적수법대로 제재카드를 또다시 꺼내들면서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려고 어리석게 놀아댔다.

베네수엘라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최근 미국의 새로운 제재책동을 일방적이고 비법적인것이라고 신랄히 비난하였다. 성명은 자국에 대한 제재가 도리여 미국에서 가스가격의 폭등을 가져올수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미국의 일반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으로 될것이라고 야유, 조소하였다.

베네수엘라정부는 새로운 무역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원유공업, 항공운수, 투자 등 분야에서 아시아, 아프리카나라들과의 무역관계를 발전시키게 된다.

이처럼 미국의 횡포한 내정간섭과 비렬한 제재책동은 그 어디에서나 배척받고있다.

어떤 정치방식을 택하고 어떤 방법으로 사회적발전을 이룩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해당 나라의 자주적권리에 속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누구도 그에 간섭하여나서거나 지시하고 호령할 권한이 없다.

이것을 외면하고 힘의 과신, 패권주의에 사로잡혀 세계를 자기의 독판치기무대로 여기며 횡포한 전횡과 내정간섭행위를 일삼는 미국이 도처에서 규탄배격의 대상으로 되여 궁지에 몰리우고있는것은 응당한 귀결이다.

미국이야말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고질적인 내정간섭악습을 버리지 못하는 고약한 시비군, 문제해결에 복잡성만을 조성하는 철면피한 훼방군이다. 그래서 어제는 물론이고 오늘도 세상사람들은 미국이 이 행성에 있는것보다 없는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 수 진

ㄱ-71149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